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과
지도자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장 도 진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과 지도자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성 호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장 도 진

장도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김 선 진 (인)

부위원장 박 일 혁 (인)

위 원 권 성 호 (인)

국문초록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과 지도자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 선수의 능력 믿음 및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여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쟁상황에서 청소년 축구선수의 최상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을 승부근성으로 개념화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인으로써 선수가 지닌 능력 믿음과 지도자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선수의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관계를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364명의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322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능력 믿음 중 선수 능력 믿음에서는 증진 믿음만이 승부근성에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도자의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은 증진 믿음과 실제 믿음이 함께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은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축구선수, 정신적 강인함, 승부근성, 능력 믿음, 지도자
학 번 : 2015-21673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8
제 3 절 연구 문제	8
제 4 절 용어의 정의	10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제 1 절 승부근성(tenacity)	11
1. 정신적 강인함(mental toughness)의 개념화	11
2. 정신적 강인함의 구성요소와 측정	15
3.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	20
4. 승부근성	23
제 2 절 능력 믿음(ability belief)	25
1. 능력 믿음의 개념 및 정의	25
2. 능력 믿음의 특징	27
3. 능력 믿음과 정신적 강인함(승부근성)	30
4. 지도자의 능력 믿음	31
 제 3 장 연구 방법	34
제 1 절 연구대상	34
제 2 절 조사도구	35
제 3 절 자료분석	37
제 4 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38

제 4 장 연구 결과	39
제 1 절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	39
제 2 절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47
제 3 절 배경 변인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	48
제 4 절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56
제 5 절 조절효과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60
 제 5 장 논의	 69
 제 6 장 결론 및 제언	 76
제 1 절 결론	76
제 2 절 제언	79
 참고문헌	 83
부록	100
Abstract	104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4
[표 2] 승부근성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2
[표 3] 선수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5
[표 4]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7
[표 5] 선수 및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승부근성의 기술통계량	48
[표 6] 학년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49
[표 7] 운동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51
[표 8]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52
[표 9] 개인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54
[표 10] 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55
[표 11] 상관관계(Correlation) 및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	58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	59
[표 13]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승부근성) ..	62
[표 14]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승부욕)	64
[표 15]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투지)	65
[표 16]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자신감)	67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1	9
[그림 2] 연구 모형2	9
[그림 3] 승부근성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41
[그림 4] 선수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44
[그림 5]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46
[그림 6]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승부근성)	63
[그림 7]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승부욕)	65
[그림 8]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투지)	66
[그림 9]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자신감)	6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는 경쟁성(competitiveness)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Guttmann, 1978). 경쟁을 통한 승리는 스포츠 경기를 존재하게 하는 당위성이며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지향하지만(이학준, 1999),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는 필연적으로 승리와 패배, 즉 성공과 실패 경험을 모두 동반한다(성창훈, 박상혁, 201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경쟁과 도전 그리고 평가를 경험하는 운동선수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최상수행에 대한 노력과 도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Golby, Sheard, & Wersch, 2007; Gould, Dieffenbach, & Moffett, 2002; Jones, Hanton, & Connaughton, 2002, 2007).

우리나라 학교 축구 경기 시스템은 2008년 ‘학교축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축구선수 양성 및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여건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전국대회 중심으로 산발적인 경기를 치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리그 경기제도를 도입했다(대한축구협회¹⁾). 변경된 리그 경기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축구팀은 시즌 중 매 주 리그 시합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매 주 승리 또는 패배로 이어지는 경기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권오성, 김수정, 이충영, 2015; 이원희, 박현권, 임수원, 2011). 리그제도의 도입은 학습권의 보장과 경기력 유지의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지속적인 경쟁상황에 처하게 된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전성미, 전정우, 최천, 2010). 또한 청소년기의 선수들은 학생이자 선수로서의 역할 혼란, 그리고 패배 및

1) www.kfa.or.kr/league - 리그 소개/규정(U리그, 초중고리그)

실패와 같은 경기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성창훈, 홍성철, 성한기, 2001; 윤영길, 이성철, 2006; 허정훈, 안성훈, 2015; Balaguer et al., 2012). 특히 스포츠 경기력은 일회성의 좋은 기록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운동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Creasy, 2005; Helsen, Hodges, Winckel, & Starkes, 2000),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경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능력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윤영길, 2004, 2013; 윤영길, 김원배, 2004; 윤영길, 이용수, 2006). 이처럼 반복되는 경쟁과 도전 그리고 평가 속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을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강인함(mental toughness)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성취욕구를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정신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원배, 2002; Crust, 2007, 2008; Gucciardi, & Gordon, 2011; Middleton, 2007; Sheard, 2012; Thelwell, Weston, & Greenlees, 2005).

정신적 강인함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정신적 강인함의 공통적 속성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목표를 향한 확고한 태도를 바탕으로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을 지속하는 의식 또는 능력’을 주장한다(김원배, 2002; 박혜주, 2014; Crust, 2007; Crust & Clough, 2005;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Marsh, Martin, Richards, & Perry, 2004a). 한편, Weinberg, Butt와 Culp(2011)는 정신적 강인함의 개념이 종목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해당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달리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원배(2001)는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지닌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영길(2004)은 673명의 축구선수와 85명의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축구선수의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하였으며, 이는 부정적인 한계 상황에서 할 수 있다거나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정의된다. 즉,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은 승부욕과 투혼을 바탕

으로 한계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확신으로써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운동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을 나타내는 승부근성(신정택, 김성훈, 박윤식, 2009)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다.

최상수행과 관련된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정신적 강인함은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유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김정묵, 김영욱, 배연석, 2015; 송진섭, 임식, 2015; 이병근, 2011; Drees & Mack, 2012; Jackman, Swann, & Crust, 2016; Mahoney, Gucciardi, Ntoumanis, & Mallet, 2014). 앞서 기술했듯이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패(패배)와 같은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성창훈, 박상혁, 2012, 2013; Jones, 2002, 2007). 마찬가지로 국내 운동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승부근성이 운동선수의 경기수행과 관련된 자기관리, 자신감, 동기, 자기조절, 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기력 결정 요인임을 지지했다(김경엽, 박정호, 2016; 김성일, 2014;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 2010; 김현우, 2014; 박지영, 오연풍, 양춘호, 2016; 이정국, 2015; 전병관, 추수진, 2011; 한승용, 2013).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신적 강인함(승부근성)이 스포츠 경쟁 상황의 맥락을 반영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써, 운동선수가 직면하는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토대로 발달되는 전형적 반응, 즉 개인의 특성(심리적 핵)과 사회적 환경(역할 행동)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박혜주, 2014; Connaughton, Wadey, Hanton, & Jones, 2008; Cook, Crust, Littlewood, Nesti, & Allen-Collinson, 2014; Drees & Mack, 2012; Gucciardi, Hanton, Gordon, Mallett, & Temby, 2015;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a; Weinberg et al., 2016; Weinberg, Freysinger, & Mellano, 2011).

이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 형성 및 발달은 그들이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어떠한 양상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취경험에 대한 반응 양식과 관련된 청소년 축구선수의 개인적 특성은 승부근성의 형성 및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규명함

으로써 청소년 축구선수의 경기력 결정 요인인 승부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인지적 동기모형(social cognitive model of motivation)을 제시한 Carol S. Dweck과 동료들(Dweck, 2000, 2016, 2017a, 2017b; Dweck & Leggett, 1988; Molden & Dweck, 2006)에 따르면 개인의 상황 판단 및 반응, 즉 인지적 패턴은 자신이 지닌 특질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에 바탕을 둔 것이다. 특히 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개인적 특성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동기, 인지, 그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Burnette, O'Boyle, VanEpps, Pollack, & Finkel, 2013; Dweck, 2016, 2017a, 2017b; Dweck, Chiu, & Hong, 1995; Dweck & Leggett, 1988), 이러한 능력가변성에 대해 형성한 개인의 믿음(신념)을 능력 믿음(ability belief) 또는 마인드셋(mindset)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능력 믿음은 능력이 변화가능하다고 믿는 증진 믿음과 능력이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 실체 믿음으로 구분되며(Dweck, 2006, 2016, 2017a, 2017b; Dweck & Leggett, 1988), 한 개인은 같은 영역에서 모순된 믿음을 동시에 지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한 가지 믿음이 우월하게 나타난다(Dweck et al., 1995; 박중길, 김기형, 2010에서 재인용). 이를 성취 상황에서의 경험과 관련하여 보면, 증진 믿음을 지닌 사람은 능력이 학습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해 역경과 실패 경험에도 기대감과 통제감을 지니고 지속적인 노력 및 도전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실체 믿음을 지닌 사람은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역경과 실패 경험에 대해 수치심과 무기력을 느껴 수행을 포기하거나 성취 기준을 하향시키는 등 부적응적 반응을 보인다(이명진, 봉미미, 2013;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 Leggett, 1988; Job, Dweck, & Walton, 2010; Yeager & Dweck, 2012).

스포츠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 믿음은 운동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운동선수의 목표성향, 자기조절, 노력, 내적 동기 등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박중길, 2012; 박중길, 김기형, 2010; 이혜선, 양명환, 2013; Sarranzin et

al., 1996; Vella, Braithewaite, Gardner, & Spray, 2016).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목표 성향과 그에 따른 신체활동에 대한 의도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중요한 점은 실제 운동선수가 지닌 능력보다 성취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홍준희, 2005; Vella et al., 2016). 또한 Vella 등(2016)은 스포츠 및 운동과 관련된 신체활동 맥락에서의 역경과 실패,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능력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운동능력에 대해 증진 믿음을 지닌 경우 실패 경험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인 수행을 지속하는 반면, 실제 믿음을 지닌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함으로써 성공하기 쉬운 과제에만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동선수의 능력 믿음은 승부욕과 투혼을 바탕으로 한계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승부근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 김현우(2014)의 연구를 통해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관계가 일부 규명되었다.

하지만, 대학 운동선수의 능력 믿음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승부근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현우(2014)의 연구는 증진 믿음과 실제 믿음의 영향력을 각각 구분하여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에 포함된 승부근성이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을 승부근성으로 개념화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믿음을 각각 증진 믿음과 실제 믿음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믿음이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스포츠 상황에서 운동선수의 수행은 주요타자인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도자의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선수의 지각은 선수 자신의 행동반응 및 성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임이 지지되었다(성창훈, 김태형, 유승준, 최마리, 박상혁, 2011; 이근철, 김인우, 신명진, 2014; 최마리, 김병준, 2008, 2011). 마찬가지로 청소년 축구선수의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인 승부근성과 같은 정신

적 강인함의 형성 및 발달은 주요 타자, 특히 지도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국, 2015; Gucciardi, Gordon, Dimmock, & Mallett, 2009; Jones et al., 2002, 2007; Parkes & Mallett, 2011; Thelwell et al., 2005). Gucciardi 등(2009)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 발달과 관련하여 지도자-선수 관계, 지도자의 철학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Jose와 Bellamy(2012)의 미국, 뉴질랜드, 중국, 일본의 아동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교 문화연구에서는 부모의 암묵적 이론이 아동의 학습지속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학습지속력은 청소년 축구선수가 경쟁 상황에서 수행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지속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 형성 및 발달은 주요 타자인 지도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가변성에 대한 신념, 즉 능력 믿음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타자의 능력가변성 신념과 관련하여 조직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 상황에서 상사가 지니는 능력가변성에 대한 신념이 부하들에 대한 코칭행동에 영향을 미치며(한길화, 2011; Heslin, Latham, & VandeWalle, 2005), 결과적으로 상사의 증진 믿음이 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부하의 직무수행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나경, 유태용, 2015; Whiteley & Johnson, 2012).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써 상사의 내면적 신념이 부하에 대한 기대로 작용하여 실제 부하의 동기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오인수, 서용원, 2001), 또 하나는 리더-멤버 교환관계 이론(leader-member exchange theory; LMX)에 근거하여 상사가 증진 믿음을 지닌 다는 것이 부하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것으로 지각되어 부하 또한 긍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통해 이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Aryee, Budhwar, & Chen, 2002).

이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능력 믿음은

선수 자신에 대한 코칭행동 및 평가로 지각되어, 그에 대한 선수의 반응 행동으로써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12세를 전후하여 자신이 지닌 특질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형성한다는 점(Dweck & Leggett, 1988)은 청소년 축구선수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박중길과 김기형(2010)은 국내 중고교 및 대학 운동선수 1,6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능력 믿음이 학교 급별에 따라서 유의하게 변화하며, 국외 선행연구들(Frederick & Eccles, 2002; Wigfield, et al., 1997)과 마찬가지로 학교 급별이 높아질수록 증진 믿음보다 실체 믿음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급별에 따라 변화하는 각기 다른 믿음의 요인들이 승부근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실체 믿음이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부적응적 반응과 관련되지만, 실체 믿음을 지닌 사람 또한 수행목표성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박중길, 2012; Dweck, 1986, 1991, 1996; Wang & Biddle, 2003)에서 마찬가지로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스포츠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수행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승부근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승부근성은 다양한 성취경험에 대한 반응양식과 관련된 능력 믿음으로부터 기인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김현우, 2014)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각기 다른 능력 믿음(증진/실체)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수의 지도자 인식은 성취행동의 중요한 선행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 믿음과 더불어 지도자의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능력 믿음이 선수의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진 믿음 및 실체 믿음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 그리고 선수의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관계에서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 능력 믿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능력 믿음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축구선수가 더욱 높은 승부근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믿음 및 지도자의 능력 믿음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 문제

1. 청소년 축구선수의 학년, 운동경력, 주전여부 인식, 입상경력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선수가 지각한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능력 믿음과 선수의 승부근성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 1)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은 승부근성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은 승부근성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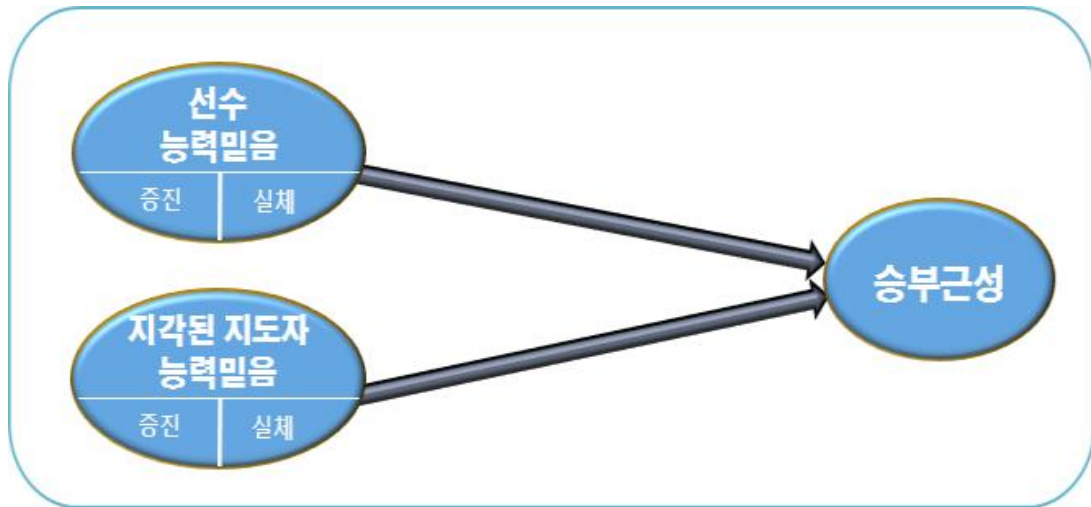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1

3.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그림 2>의 연구모형과 같이,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 능력 믿음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 간의 관계는 어떻게 조절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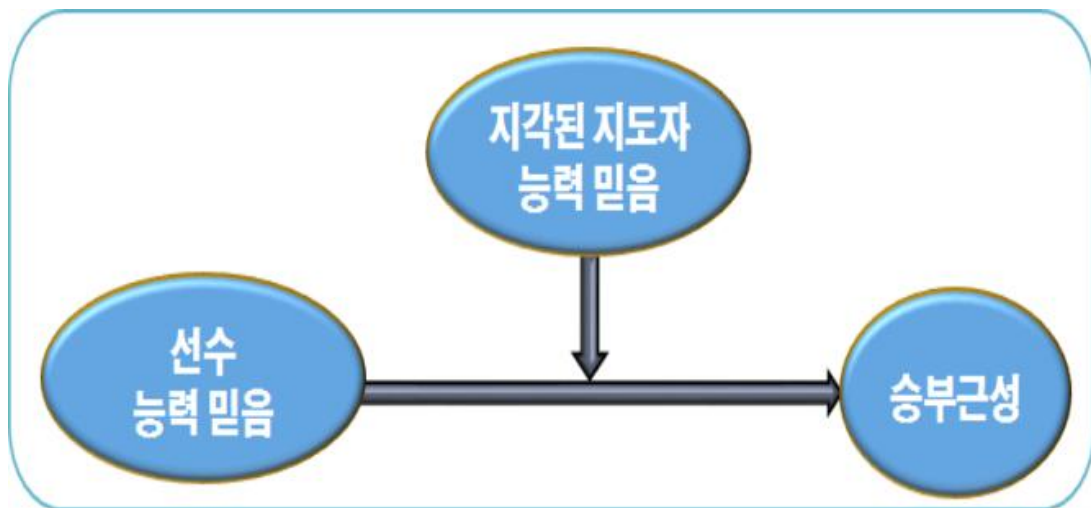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2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승부근성(tenacity)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끈기와 의지로 극복하며, 승리하고자하는 열망을 증가시켜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하는 욕구로써, 승부욕, 투지(투혼), 자신감으로 구성된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

2. 능력 믿음(ability belief)

심리적 특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체 믿음 또는 증진 믿음으로 구분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핵심적인 신념

1) 증진 믿음(incremental belief)

자신의 능력이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

2) 실체 믿음(entity belief)

자신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

3)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perceived coach's ability belief)

지도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선수의 지각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승부근성(tenacity)

1. 정신적 강인함(mental toughness)의 개념화

스포츠가 지닌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운동선수들은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적 측면이 강조된다(김원배, 2002; 박혜주, 2014; 신정택 등, 2009; Golby et al., 2007; Gould et al., 2002; Gucciardi & Gordon, 2011; Gucciardi et al., 2015). 실제 불안이나 자신감 등 단일적 심리요인만으로는 스포츠 수행을 설명하기에 제한되며, 정신적 강인함과 같은 총체적 심리요인으로써 성공적인 스포츠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성창훈, 박상혁, 2012, 2013; Jones et al., 2002, 2007; Mahoney et al.,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심리적 구인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할 수 있다.

정신적 강인함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경쟁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최고 수준의 수행과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라는 것이다(Gucciardi et al., 2015, Gucciardi, Zhang, Ponnusamy, Si, & Stenling, 2016; Jones et al., 2002, 2007). 이에 따라 정신적 강인함은 다양한 성취 장면(스포츠, 비즈니스, 작업 공간 등)에서의 탁월한 수행 능력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났다(Colbert, Scott, Dale, & Brennan, 2012; Gerber et al., 2013; Gerber et al., 2013; Gerber et al., 2012; Jones & Moorhouse, 2007; Miller, 2008). 이러한 점은 최근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의 연구주제를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Rusk & Waters, 2013).

스포츠 상황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성공적인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운

동선수의 심리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정신적 강인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졌다(권성호, 문민권, 안효연, 2015; Crust, 2007, 2008; Crust & Clough, 2011; Weinberg et al., 2016).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과 운동선수들은 경기력에 있어 결정적인 심리요인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박혜주, 2014; Creasy, 2005; Crust, Nesti, & Littlewood, 2011; Jones et al., 2002, 2007; Weinberg et al., 2011). 또한 정신적으로 강인한 운동선수는 부상이나 슬럼프 등 직면가능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이섭, 김용이, 2000; 이만재, 김병식, 2014; Gucciardi & Gordon, 2011; Sheard, 2012). 하지만 모호한 개념화와 합의되지 않은 정의는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정신적으로 강인한 운동선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켰다(김원배, 2002; Creasy, 2005; Gould et al., 2002;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b; Thelwell et al., 2005).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스포츠 심리학 연구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경기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기술을 적절히 보유한 것으로 보는 이상적 심리상태(ideal psychological state)의 관점이며, 또 하나는 경쟁 상황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보는 고통인내와 승부욕(pain tolerance and desire to win)의 관점이다(김원배, 2002; 신정택 등, 2009; Golby et al., 2007; Gould, Hodge, Peterson, & Petlichkoff, 1987; Jones et al., 2002, 2007). 이렇게 구분되는 관점에 근거한 연구들은 정신적 강인함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실제 연구에서 그것을 측정할 때에도 각기 다른 것을 측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명확한 관점 정립 및 개념화를 하지 못한 채 이상적 심리상태의 관점에서만 연구대상에 따른 심리기술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김승철, 하형주, 1995; 박종진, 2000; 신동성, 구해모, 이병기, 한명우, 이강현, 1999; 조대용, 엄성호, 2004; 차성복, 1996), 김원배(2002)의 한국형 스포츠 정신력 척도에

관한 연구 이후 고통인내와 승부욕의 관점에서 정신적 강인함의 개념구조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 이어졌다(김성훈, 노갑택, 신정택, 2010; 김용규, 강지훈, 김덕진, 2010; 김인수, 2015, 2017; 김인수, 최정아, 2016; 김정묵, 김병준, 2010, 2015; 김정묵 등, 2015; 박혜주, 2014; 성창훈, 박상혁, 2012, 2013; 송진섭, 임식, 2015; 이만재, 김병식, 2014; 이병근, 2011; 이병근, 김수빈, 2013). 또한 신정택 등(2009)은 한국 운동선수들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정신적 강인함의 특성을 승부근성(tenacity)이라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끈기와 의지로 극복하며, 승리하고자하는 열망을 증가시켜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하는 욕구로써 개념화된다. 관련 후속 연구들은 다양한 종목의 한국 운동선수들이 지닌 승부근성이 자기관리, 자신감, 동기, 자기조절, 몰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기력 결정변인임을 지지했다(김경엽, 박정호, 2016; 김성일, 2014; 김영미 등, 2010; 김현우, 2014; 박지영 등, 2016; 이정국, 2015; 전병관, 추수진, 2011; 한승용, 2013).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의 정신적 강인함 연구는 경쟁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발휘되는 정신적 강인함의 구성개념 타당성의 근거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력(mental power)과의 용어 사용 혼란이 발생했다. 아직까지 정신적 강인함과 정신력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고통인내와 승부욕의 관점에서 발전되어온 정신적 강인함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외의 정신적 강인함 관련 초기 연구들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상적 심리상태의 관점에서 James (Jim) E. Loehr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심리기술 요인을 중심으로 정신적 강인함을 탐구하였으며(Durand-Bush & Salmela, 2002; Golby et al., 2007; Gould et al., 2002; Gould et al., 1987), Jones 등(2002, 2007)이 개인구성이론(personal construct theory)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연구들은 심리적 구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관심으로 그 방향성이 변화했다(Bull,

Shambrook, James, & Brooks, 2005; Crust, 2007, 2008; Crust et al., 2011; Moddleton et al., 2004a; Thelwell et al., 2005). 또한 Clough와 동료들(Clough, Earel, & Sewell, 2002, Crust & Clough, 2005)은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개념화된 심리적 강인성(psychological hardiness: Kobasa, Maddi, & Kahn, 1982; Kobasa, Maddi, Puccetti, & Zola, 1985)에 착안한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준거관련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사실 Clough와 동료들의 심리적 강인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 성격 연구에서 16-PF(16-Personality Factor: Cattell, 1957)이 한 요소인 ‘강인한 마음(tough-mindedness)’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Crust, 2007에서 재인용). 이후 Bull과 동료들(2005)은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운동선수들이 정신적 강인함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적 강인함의 개념적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합의된 척도의 개발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츠 현장에서 실제적인 연구와 적용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Creasy, 2005; Crust, 2007, 2008; Crust & Clough, 2011).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신적 강인함의 개념화에 대한 여러 제한점들이 식별되지만, 정신적 강인함의 범주에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공통요소들을 통해 개념화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가능하다. 즉, 기존 Loehr와 그의 동료들의 관점에서 적절한 심리기술을 보유한 이상적 심리상태로써 정신적 강인함을 정의하는 것은 구성개념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고, 단지 정신적으로 강인하다고 인식되는 선수들의 특징을 나열하였다는 점에서 고유한 심리적 구인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Jones와 동료들이 제시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쟁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게끔 하는 심리적 동인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된 다양한 연구들은 정신적 강인함의 공통적 요소로써 자신감(또는 자기효능감), 통제력(또는 조절력), 헌신(또는 몰

입), 수행압박(또는 역경)에 대한 대처 및 도전 정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개념을 포괄하는 정신적 강인함은 성취 욕구를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또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강인함은 용어상 정신력과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인내, 끈기, 탄력성, 강인성과는 다른 독자적인 심리적 구인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Creasy, 2005; Middleton, 2007).

2. 정신적 강인함의 구성요소와 측정

앞서 고찰한 정신적 강인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명확한 개념화를 목적으로 정신적 강인함의 핵심적 특성을 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만큼 개념의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Clough, Earle, Perry, & Crust, 2012; Crust, 2007, 2008; Diment, 2014; Gucciardi, Gordon, & Dimmock, 2009b; Gucciardi, Hanton, & Mallett, 2012, 2013; Middleton, 2007). 지금까지 개발된 정신적 강인함에 관한 척도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각기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박경신, 2012). 심리적 구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개념적 근거(요인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심리측정학적 근거(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탁진국, 2007),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정신적 강인함 관련 척도들의 개념적/심리측정학적 근거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각기 다른 정신적 강인함들 속 공통된 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초기 정신적 강인함 관련 연구는 Loehr와 동료들이 제시한 이상적 심리상태의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강인한 선수들이 뛰어난 심리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란 가정을 했다(Loehr, 1984, 1986; 박경신,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감, 각성조절, 주의조절, 태도조절, 시각화 및 이미지, 동기수준, 긍정적 에너지의 7요인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PPI(Psychological Performance Inventory: Loehr, 1986)가 개발되었으며.

스포츠 연구 및 현장에서 정신적 강인함을 측정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김승철, 하형주, 1995; 박종진, 2000; 신동성 등, 1999; 조대용, 엄성호, 2004; 차성복, 1996; Durand-Bush & Salmela, 2002; Golby et al., 2007; Gould et al., 2002; Gould et al., 1987). 그러나 PPI는 최초 심리측정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Gucciardi et al., 2009b), Golby 등(2007)에 의해서 개발된 수정본 형식의 척도인 PPI-A(Psychological Performance Inventory-Alternative) 또한 통계적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Middleton et al., 2004b).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명확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심리적 구인이 아닌 단지 심리기술 요인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Crust, 2007, 2008).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Middleton과 그의 동료들(2004b)은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자체적 구성개념(압박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갖는 확고한 끈기와 신념)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인내, 목표 전념, 전력 추구, 잠재력, 과제 친숙도, 과제 가치, 과제 집중력, 스트레스 최소화, 정신적 자아개념, 긍정성, 긍정적 비교의 12요인 총 67문항으로 구성된 MTI(Mental Toughness Inventory: Middleton et al., 2004b)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최상수행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상의 요인들이 모두 정신적 강인함의 구성요소로써 포함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Crust, 2007, 2008). 또한 척도개발 과정에서 우수 고교 선수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준거관련 타당도 등 후속연구를 통한 척도의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Golby et al., 2007; Sheard, 2012; Sheard, Golby, & Van Wersch,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Gucciardi와 동료들(2015)이 제시한 MTI(Mental Toughness Inventory: Gucciardi et al., 2015)는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자체적 구성개념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척도로써, 중요한 역경에 맞서 주관적 또는 객관적 수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게 생성(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신적 강인함을 정의한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다차원적 구조의 판별 타당도 문제를 극복하였고, 운동선수

의 경기력과 스트레스(대처)의 측면에서 정신적 강인함을 적절히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안정적 특성이면서도 비교적 상황적 요구에 의존하는 상태적 심리로써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하였다(Gucciardi et al., 2016). Gucciardi와 동료들이 개발한 MTI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고(Gucciardi et al., 2015), 송용관, 천승현과 황승현(2017)에 의해 한국판 MTI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실제 질문지의 문항을 확인해보면, 기존 Loehr의 이상적 심리상태 관점에서 제시한 집중 조절, 감정·지식 활용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신적 강인함이라는 구인 자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내용 타당도의 근거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자체적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김병현, 이한규와 엄한주(1997)는 11개 종목의 45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자기효능감, 도전의식, 걱정의 3요인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정신력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의 개발은 한국선수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구성개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하위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요인 간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차타당도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적인 통계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원배, 2001; 김홍설, 2010; 박경신, 2012; 이강현, 김병준, 안정덕, 2004). 이에 정청희, 김원배와 이춘만(1998)은 Bull, Albinson과 Shambrook(1996) 및 Kobasa 등(1982)이 제시한 정신적 강인함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현장의 코치 감독 및 선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비문항을 개발 후,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고교 운동선수 정신력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자신감, 끈기 승부욕, 오기, 긍정적 생각, 몰입의 6요인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심리측정학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과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당시 국내외의 정신적 강인함 관련 연구가 주로 Loehr가 제시한 이상적 심리상태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동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신정

택 등(1999)은 Loehr의 심리검사지의 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오기, 독기, 한’을 포함한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는 한국형 정신적 강인함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활용한 측정도구는 심리기술 요인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원배(2002)는 한국형 스포츠 정신력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척도개발 단계에서 엄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타당한 심리측정학적 근거가 확보된 4요인(승부욕, 분투노력, 인내끈기, 불굴의 투지) 총 20문항의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타당도 검증이 진행되었으나(김용규 등, 2010; 김인수, 2015, 2017; 김인수, 최정아, 2016; 김정묵, 김병준, 2010; 김정묵 등, 2015; 성창훈, 박상혁, 2012, 2013; 송진섭, 임식, 2015; 이병근, 2011; 이병근, 김수빈, 2013), 투기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개발된 질문지로서 다른 종목의 대상에게 그대로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신정택 등(2009)은 국가대표급 선수를 대상으로 개방형설문-면접-예비조사-외적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3요인(승부욕, 투혼, 자신감) 총 20문항의 승부근성 검사지를 개발함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국외연구를 통해 개발된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된 척도가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유진, 1996; 신정택 등, 2009에서 재인용)에서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지닌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정신적 강인함 척도를 개발한 것이다.

이후 정신적 강인함 척도의 개발은 특정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Gucciardi & Gordon, 2009, 2011; Gucciardi et al., 2009b), 이러한 척도들은 Jones와 동료들(2002, 2007)이 제시한 정신적 강인함의 핵심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편적인 척도로 활용되지 못했다(Madrigal, Hamill, & Gill, 2013). 이에 따라 Sheard 등(2009)은 선행 연구들의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 11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3요인(자신감, 결의, 통제) 총 14문항의 SMTQ(Sport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구인 타당도 및 수렴/변별 타당도가 검증되어 우수한 심리측정학적 근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Crust & Swann, 2011; Sheard, 2012). 하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일부 문항들이 다른 요인 또는 중복 요인을 반영하는 등 논리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Crust & Swann, 2011; Madrigal et al., 2013).

한편으로는 Loehr와 그의 동료들이 정신적 강인함의 신체적·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맥락에서 다차원적인 정신적 강인함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Mental Emotional and Behavioral Toughness Inventory: Mack & Ragan, 2008)가 있었지만, 연구대상이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앞서 고찰한 정신적 강인함에 관한 이론적·개념적 근거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Madrigal et al., 2013). 또한 Madrigal 등(2013)은 Jones와 동료들이 제시한 정신적 강인함의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태도/마음가짐, 훈련, 경쟁, 그리고 경쟁 이후의 다차원적 정신적 강인함을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된 대학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 척도(MTS: Mental Toughness Scale)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대학생 연령의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학생 선수와 구분하여 진행된 것으로, 아직까지 엘리트 스포츠 및 학교 운동부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Kobasa와 동료들이 제시한 강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신적 강인함에 접근한 Clough와 동료들(Clough et al., 2002; Crust & Clough, 2005)은 기존 강인성 3C 모델(통제, 전념, 도전)에 스포츠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자신감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4C(자신감, 통제, 전념, 도전) 모델에 근거한 MTQ-48(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48)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 척도는 후속 연구에서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실제 운동부하 검사와 인지적 과제를 통해 운동 수행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준거타당도도 검증되었다(Crust & Clough, 2005). Clough와 동료들은 정신적 강인함의 핵심 특성을 역경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회복 능력으로 보고, 스포츠 상황을 반영하는 상태

적 심리로 개념화하였으나, 이론적 근거로 삼은 강인성 개념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일부 연구에서 요인구조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rust, 2007; Crust & Swann, 2011; Gucciardi et al., 2012, 2013; Sheard et al., 2009). 하지만, MTQ48은 운동선수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대처 및 회복능력에 초점을 두고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했다는 점과 실제 운동수행력과의 관계가 검증된 점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된다(김나라, 문창일, 2011; Brand et al., 2014; Brand et al., 2016; Clough et al., 2012; Crust et al., 2011; Perry, Clough, Crust, Earle, & Nicholls, 2013; Sheard, 2012).

지금까지 살펴본 정신적 강인함 관련 문헌들을 통해,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강인함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념적 근거와 심리측정학적 근거를 모두 충족하는 척도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연구의 목적 및 대상을 근거로 하여 가장 적절한 정의와 척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을 경기력 결정 변인으로 선정하고 어떠한 선행변인이 이것을 높여주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은 앞서 고찰한 개념의 공통적 속성과 다음으로 기술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

축구는 선수 개인의 경기 운용이 경기 흐름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흐름 중심 경기이며, 역동적 경기 상황이 선수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행동적 수행이 발현되는 종목이다(윤영길, 2004; Singh, Dureja, & Singh, 2012; Thelwell et al., 2005). 또한 단체종목인 축구는 개인과 팀의 역학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축구선수는 일상생활 및 훈련과 시합은 물론 지도자, 선·후배와의 갈등이나 가정환경, 학교적응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백기명, 배춘식, 2012; 윤영길, 정청희, 1999; 윤영길, 이성철, 2006; 이순표, 김영수, 이상돈, 2008; 허정훈, 안성훈,

2012). 축구의 이러한 측면은 앞서 심리적 요인을 통제하여 이상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경기 중 겪게 되는 힘든 고통을 감소시키고 승리에 대한 욕망을 증가시키는 것,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 인내하고 남과의 경쟁에서 강한 승부욕을 내는 것(김원배, 2002; Gould et al., 1987; Golby et al., 2007; Jones et al., 2002, 2007)으로 개념화한 정신적 강인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신적 강인함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의 특성과 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심리적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Cook et al., 2014; Coulter Mallett, & Gucciardi, 2010; Crust, 2007; Drees & Mack, 2012; Gucciardi, Dimmock, & Mallett, 2008; Gucciardi et al., 2009; Gucciardi & Jones, 2012; Singh et al., 2012; Weinberg et al., 2011). 실제 국내 연구에서 윤영길과 그의 동료들은 경기력 결정 요인 4개(축구지능, 기술, 심리, 매개기술) 중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정적인 한계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과 사고를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는 정신적 강인함의 중요성을 주장했다(윤영길, 2004, 2009, 2013; 윤영길, 김원배, 2004; 윤영길, 이용수, 2006). 마찬가지로 국외 연구에서 Thelwell과 그의 동료들은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은 경쟁, 훈련,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요구들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보다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단호함, 집중력, 자신감,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상대방보다 일관적이고 우월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심리적 강점을 뜻하며, 정신적으로 강인한 축구선수는 항상 성취에 대한 자기믿음을 지니고, 플레이가 좋던 좋지 못하던 항상 볼을 갈구하며,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압박을 즐기며 침착성을 유지하는 등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Thelwell et al., 2005).”

이와 같이 대상의 특성과 처한 환경을 고려한 심리적 구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축구선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청소년 축구선수의 축구재능에 관한 윤영길(2013)의 연구는 심리지능, 경기지능, 신체지능으로써 그 재능을 범주화하고, 특히 심리지능은 편터멘틀, 동기, 정신력, 관계자본, 심리전략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발달과업으로는 책임감, 희생, 신뢰, 마인드컨트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축구선수의 재능이 경기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체, 심리적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는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능력의 비중이 줄어드나, 심리적 능력의 비중은 증가한다(윤영길,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 또한 훈련 환경과 경쟁 경험으로부터 형성 및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정신적 강인함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신적 강인함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라 주장했다(김원배, 2001; Bull et al., 2005; Jones et al., 2002, 2007). 이와 더불어 정신적 강인함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발달이 가능하며 실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단적으로 변화한다는 측면(Cook et al., 2014; Gucciardi et al., 2009a; Gucciardi et al., 2009)에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이 스포츠 경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특성이며 축구선수가 직면하는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토대로 발달되는 전형적 반응임을 알 수 있다(박혜주, 2014; Connaughton, et al., 2008; Drees & Mack, 2012; Gucciardi et al., 2015;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a; Weinberg et al., 2016; Weinberg, et al., 2011).

보다 구체적으로 윤영길(2004)의 축구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적 강인함(정신력)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부정적인 한계 상황에서 할 수 있다거나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써 개념화하였다. 연구에서 포함된 정신적 강인함의 요인은 승부욕과 투지로써 단순히 수행을 잘 하고자하는 의지를 넘어서는 개념을 의미한다(윤영길, 2004). 이는

앞서 고찰한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경쟁 상황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보는 고통인내와 승부욕(pain tolerance and desire to win)의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은 한계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확신으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운동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을 나타내는 승부근성(신정택 등, 2009)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다.

4. 승부근성

승부근성이란 성공에 대한 성취 욕구를 바탕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확신으로써, 승부욕, 투지, 자신감으로 구성된 한국 운동선수 특유의 정신적 강인함이다(신정택 등, 2009).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자신감), 어려운 역경에서도 끈기와 의지로 극복하며(투지), 승리하고자하는 열망을 증가시켜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하는 욕구(승부욕)로 개념화될 수 있다(김경엽, 박정호, 2016; 전병관, 추수진, 2011).

1) 승부욕(wining spirit)

승부욕이란 시합이나 경기에서 이기고자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많은 선수들이 승부근성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배, 2002; 신정택 등, 2009; 정청희 등, 1998; Bull et al., 1996). 구체적으로 김승한(2009)은 승부욕을 이기려는 마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개념화하였다(추수진, 2011에서 재인용).

운동선수가 운동경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김원배, 2002). 승부욕이 강한 선수들은 승리에 대한 높은 집착적 행동을 나타내는데, 특히 한국의 문화 속에서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선수들의 그러한 집착적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은 선수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추수진, 2011에서 재인용).

용). 이와 관련된 부적응적 반응으로, 승부욕이 높은 운동선수는 실패했을 경우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심리적 분노와 적개심을 지닐 수가 있다는 것이다(김원배, 2001). 하지만 승부욕은 선수들의 높은 욕구 수준과 자존심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시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다(김원배, 2001). 따라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에게 높은 승부욕은 계속된 경쟁상황에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도전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 투지(fighting spirit)

투지란 끝까지 참고 이기려고 하는 의지로써, 국내 선수들의 우수한 정신적 강인함을 대변해 주는 용어로 활용된다(김원배, 2002; 신정택 등, 2009, 정청희 등, 1998; Middleton et al., 2004a).

운동선수에게 투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상대에게 굽히지 않고 싸우려는 의지를 의미한다(추수진, 2011에서 재인용). 이는 사회 메스컴에서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대변해 주는 용어로써 많이 활용되며, 지도자들 또한 선수들의 투지를 중요하게 평가하여 선수들에게 중요한 정신력 요인으로 강조한다(신정택 등, 2009). 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의미는, 경기에서 상대보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다시 일어나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하는 것이다(신정택 등, 2009). 또한 운동선수들이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길러진 것으로(김원배, 2001), 계속된 시합에 직면한 청소년 축구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정신적 강인함의 특징이자 승부근성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자신감(self-confidence)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로써, 운동선수들이 경쟁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거나 주어진 과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신정택 등, 2009; 정청희 등, 1998; Bull et al., 1996; Clough et al., 2002).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 또는 실패를 예측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즉, 스포츠 수행에서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은 적극적인 운동수행을 유발시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맥이 빠진 분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선수들은 어떤 시합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의지가 되는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라는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다(Gould et al., 2002; 추수진, 2001에서 재인용).

자신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었는데, Bandura(1977)에 따르면 자신감(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라 하였으며, 이의 주요 근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정서적 각성으로 나타났다(Weinberg & Gould, 2014). 또한 Vealey(1986)는 스포츠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스포츠 자신감(sport confidence)을 스포츠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신념 또는 정의로 정의하였다(Weinberg & Gould, 2014). 이러한 자신감은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긍정적 수행결과를 가져다주는 전제조건이며, 과제에 대한 몰입을 높여준다(추수진, 2011에서 재인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높은 자신감을 지녔을 경우 계속해서 성취를 추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제 2 절 능력 믿음(ability belief)

1. 능력 믿음의 개념 및 정의

능력 믿음이란 자기, 주변 환경과 타인,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의 심리적인 특성들에 대한 믿음으로, 내재적이고 비공식적인 신념에 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 또는 자기이론self-theory)에 기반을 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Dweck, 2000, 2016, 2017a, 2017b;

Dweck & Leggett, 1988; Molden & Dweck, 2006). 즉, 개인의 심리적 속성들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핵심적인 신념을 의미한다(Dweck et al., 1995). 이러한 설명은 인간이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및 주변 환경들에 대해 스스로가 특정한 이론적 설명을 형성한다는 Kelly(1955)의 개인구성이론, 그리고 개인의 특질과 관련된 잠재적 이론이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Heider(1958)의 사회인지 이론에 근거한다(Dweck et al., 1995에서 재인용).

능력 믿음이라는 심리적 변인을 제시한 Dweck과 동료들의 초기 연구는 동물들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현상을 아동의 학습 동기에 적용시키는 접근으로 시작되었다(Dweck, 2017a). 즉, 학업성취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일부 학생들은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나타내는 반면, 또 다른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 그들의 연구문제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초기 연구 접근들은 귀인(Weiner, 1972), 성취 동기(Eccles, 1983), 내적 동기(Deci, 1971), 자기효능감(Bandura, 1977), 그리고 목표지향성(Nicholls, 1984)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통해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Dweck, 2017a에서 재인용).

결국 Dweck과 그녀의 동료들은 능력 믿음이란 기본적인 신념이 목표성향 및 귀인 양식, 그리고 정서와 행동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으로 통합하여 개념화하였다(Dweck, 2000; Dweck & Leggett, 1988). 즉, 개인이 지닌 능력 믿음에 따라서 목표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즉 성취목표성향이 달라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과제수행에서 직면한 실패에 대해 각기 다른 귀인 양상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과 같은 반응 양식이 결정된다는 것이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의 설명이다. 실제 이러한 모형에 근거한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그들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김인수, 2015; 안도희, 김옥분, 표경선, 2005; 안도희, 2013; 이나경, 유태용, 2015; 이혜선, 양명환, 2013; Blackwell et al., 2007; Gardner, Vella, & Magee, 2015; Wang & Biddle, 2003; Wang, Liu, Lochbaum, & Stevenson, 2009).

능력 믿음의 구성개념은 크게 자신의 능력이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증진 믿음(incremental belief)과 자신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 실체 믿음(entity belief)으로 구분되며, 이는 최근 자신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능력자체를 고정된 것으로 믿는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으로 다시 명명되었다(Dweck, 2006; Dweck, 2017a, 2017b).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스포츠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능력 믿음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그 구성요소가 의미하는 바는 같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능력 믿음이라는 용어를 활용한다. 한편, 한 개인에게 같은 영역 내에서도 모순된 신념(믿음)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한 가지 신념이 우월하게 나타난다(박중길, 김기형, 2010; 이수경, 2016; Dweck et al., 1995). 그리고 한 성취영역에서 우월하게 나타나는 능력 믿음에 따라서 성취상황에서 개인은 각기 다른 양식으로 반응하게 된다(Dweck, 2017a, 2017b).

2. 능력 믿음의 특징

인간은 12세를 전후하여 자신이 지닌 특질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형성하며, 이러한 개인적 속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후속 동기, 인지, 그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박병기, 송정화, 2008; 이명진, 봉미미, 2013; Dweck & Leggett, 1988; Dweck et al., 1995). Dweck과 그녀의 동료들은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지능에 대한 믿음이 아동의 학습 성취에 관련된 주요한 개인적 속성임을 밝혀냈다(Blackwell et al., 2007; Burhans & Dweck, 1995; Dweck & Leggett, 1988).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지능뿐만 아니라 성격, 도덕성, 적성 등 다양한 분야의 심리적 특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Beer, 2002; Chiu, Hong, & Dweck, 1997; Dweck, Hong, & Chiu, 1993; Dai & Cromley, 2014; Yeager et al., 2014), 마찬가지로 스포츠 및 운동 상황에서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운동 능력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Sarrazin et al., 1996).

스포츠 상황에서 능력 믿음에 관한 Jowett과 Spray(2013)의 연구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암묵적 이론 형성의 선행변인 및 결과를 분석했다. Jowett과 Spray(2013)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입문 초기 부모와 같은 주요타자의 능력 믿음 성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후 유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면서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형성하는 동기 분위기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Ommundsen, 2001), 함께 운동하는 동료들의 신념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운동선수들의 능력 믿음은 성취목표 성향,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그리고 역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wett & Spray, 2013). 이 외에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운동선수의 믿음이 자신의 목표성향, 자기조절, 노력, 내적 동기 등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인임을 규명하였다(Gardner et al., 2015; Sarrazin et al., 1996; Vella et al., 2016).

성취상황에서의 실패 경험과 관련하여 보면, 증진 믿음을 지닌 사람은 능력이 학습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해 실패 이후에도 기대감과 통제감을 지니고 지속적인 노력 및 도전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실체 믿음을 지닌 사람은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실패 이후 수치심과 무기력을 느껴 수행을 포기하거나 성취 기준을 하향시키는 부적응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봉미미, 2013; Dweck, 2017a; Dweck & Leggett, 1988; Job et al., 2010; Yeager & Dweck, 2012). 이는 능력 믿음이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의 측면에서 목표 설정-목표 실행-목표 관리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능력 믿음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Burnette et al., 2013; Wang & Biddle, 2003). 즉, 앞서 고찰한 Dweck과 동료들의 사회 인지적 동기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증진 믿음을 지닌 사람은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숙달(학습)지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경험에도 자신의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실체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아(수행)지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패 이후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혹은 성취기준을 하향하는

등 부적응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 믿음은 한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지만(Dweck, 2006),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지닌 능력 믿음에는 새로운 성취경험을 통해 변화가능한 측면도 존재한다(Dweck, 2017a). 이는 앞서 고찰한 Jowett과 Spray의 질적 연구(2013)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의 능력 믿음은 주요 타자 혹은 교육(훈련)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성취결과에 대해 수행자의 능력과 같은 선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은 수행자가 고정 믿음과 관련된 반응 양식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지만, 반대로 노력이나 전략과 같은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은 수행자가 증진 믿음과 관련된 반응 양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다(김옥분, 김혜진, 2013; 안도희, 2013; Dweck, 2017a; Mueller & Dweck, 1998). 이러한 점은 특히 스포츠 및 운동 상황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승부근성)과 관련된 개인의 암묵적 믿음이 변화가능하다는 대목으로써, 지도자 및 동료와의 관계, 팀 분위기 등을 고려한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능력 믿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어느 시기에 형성되는 것일까. 기존 Harter(1999)의 성격 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과제의 성취결과를 ‘ 좋음’과 ‘나쁨’으로 도식화하여 인식하는 유아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나 고정 믿음에 대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Dweck과 동료들은 성취상황에서 피드백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아동이 지닌 능력 믿음의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Heyman & Dweck, 1998), 보다 정확하게는 성취결과의 원인을 ‘능력’과 ‘노력’으로 구분이 가능한 시기에 능력 믿음이 발달된다고 하였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능력과 노력을 인지적으로 구분하는 12세를 전후하여 자신이 지닌 특질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들(박병기, 송정화, 2008; 이명진, 봉미미, 2013; Dweck et al., 1995; Dweck & Leggett, 1988)의 주장들이 있었으나, 이를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

한 실정이다.

연령과 능력 믿음과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생애 발달의 과정에서 능력 믿음의 각 하위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기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진 믿음보다는 실체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rederick & Eccles, 2002). 또한 박중길과 김기형(2010)은 국내 중고교 및 대학 운동선수 1,6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능력 믿음이 학교 급별에 따라서 유의하게 변화하며, 국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급별이 높아질수록 증진 믿음보다 실체 믿음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능력에 관한 암묵적 이론은 성취과제에 투입되는 능력과 노력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점에 형성되며, 관련 연구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실체 믿음이 증진 믿음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령의 증가와 능력 믿음의 형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3. 능력 믿음과 정신적 강인함(승부근성)

Kruglanski와 동료들(2002)은 목표 추구의 지속성은 ‘목표에 부여된 가치’와 ‘목표 성취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이수경, 2016에서 재인용). 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충족되어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Kruglanski et al., 2002). 여기서 목표의 가치는 개인마다 제각각이어서 통제하기 힘든 측면이지만, 성취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기대는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능력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앞서 고찰한 정신적 강인함과 종합하여 보면, 정신적 강인함은 성공에 대한 성취욕구를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행을 지속하려는 의지, 즉 목표 지속성과 연관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목표 지속성은 성취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주관적 기대가 능력 믿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능력 믿음에 따른 성취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결국 정신적 강인함의 향상을 통해 목표를 지속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능력 믿음의 하위 요인은 성취목표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박중길, 2012; 박중길, 김기형, 2010; 이명진, 봉미미, 2013; 홍준희, 2005; Blackwell et al., 2007; Burnette, et al., 2013; Gucciardi, Jackson, Hodge, Anthony, & Brooke, 2015; Wang & Biddle, 2003),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정신적 강인함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김용규 등, 2010; 임진영, 김재필, 임성호, 2010; 전병관, 추수진, 2011; Kuan & Roy, 2007)에서 능력 믿음과 정신적 강인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 강인함이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발달되는 전형적 반응이며(박혜주, 2014; Connaughton, et al., 2008; Drees & Mack, 2012; Gucciardi et al., 2015;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a; Weinberg et al., 2016; Weinberg, et al., 2011), 성취결과에 대한 개인의 반응 양식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현우(2014)는 대학 운동선수의 능력 믿음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승부근성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통해 운동선수들의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관계를 일부 규명했으나, 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의 영향력을 각각 구분하여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연구에 포함된 승부근성이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지도자의 능력 믿음

스포츠 상황에서 운동선수의 수행은 주요타자인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지도자의 다양한 행동들이 선수에게 어떻게 지각되느냐에 따라 선수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성취행동이 결정된다(성창훈 등, 2011; 최마리, 김병준, 2008, 2011). 특히 Jowett과 Spray(2013)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입문 초기에

부모와 같은 주요타자의 능력 믿음 성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후 유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면서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형성하는 동기 분위기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Ommundsen, 2001), 함께 운동하는 동료들의 신념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wett & Spray, 2013).

이와 관련하여 기업 상황에서 조직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상사가 지니는 능력가변성에 대한 신념이 부하들에 대한 코칭행동에 영향을 미치며(한길화, 2011; Heslin et al., 2005), 결과적으로 상사의 증진 믿음이 강할수록 부하의 직무수행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나경, 유태용, 2015; Whiteley & Johnson, 2012).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써 상사의 내면적 신념이 부하에 대한 기대로써 작용하여 실제 부하의 동기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오인수, 서용원, 2001), 또 하나는 리더-멤버 교환관계 이론(leader-member exchange theory: LMX)에 근거하여 상사가 증진 믿음을 지닌 다는 것이 부하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므로 부하 또한 긍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통해 이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Aryee et al., 2002).

스포츠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지니는 능력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리더십의 관점에서 지도자가 능력에 대한 증진 믿음을 지니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Chase, 2012). Weinberg와 Gould(2014)는 리더란 타인과 집단이 비전을 지니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존재라고 하였으며, Chelladurai(2007) 또한 최상수행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는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써, 변혁적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자신이 이끌고 있는 타인 및 집단이 학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Vealey, 2005). 지도자란 본질적으로 선수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지도자가 선수

의 능력이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의 능력 믿음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도를 받는 선수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이다. 즉,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 선수가 지각하는 것이 선수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의 코칭행동들이 선수에게 어떻게 지각되느냐에 따라 선수의 반응 및 성취행동이 결정된다(성창훈 등, 2011; 최마리, 김병준, 2008, 2011; Chase, 2012). 이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지도자가 지니는 능력 믿음에 대한 선수의 지각은 자신의 성취행동에 대한 기대로써 작용하여 실제 선수가 경쟁상황에서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 즉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능력 믿음은 선수 자신에 대한 코칭행동으로 지각되어, 그에 대한 반응양식으로써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인 원(명)		백분율(%)	
학급/학년	중학교	1학년	201	77	62.4	23.9
		2학년		65		20.2
		3학년		59		18.3
	고등학교	1학년	121	48	37.6	14.9
		2학년		42		13.0
		3학년		31		9.6
운 동 경 력 (년)	1		8	2.5		
	2		28	8.7		
	3		45	14.0		
	4		63	19.6		
	5		55	17.1		
	6		30	9.3		
	7		38	11.8		
	8		24	7.5		
	9		9	2.8		
	10		16	5.0		
	11		4	1.2		
	12		2	0.6		
주전여부	후보		63	19.6		
	로테이션		87	27.0		
	주전		172	53.4		
개 인 입 상 경 력	없음		197	61.2		
	시대회		25	7.8		
	도대회		21	6.5		
	전국대회		79	24.5		
단 체 입 상 경 력	없음		86	26.7		
	시대회		34	10.6		
	도대회		18	5.6		
	전국대회		184	57.1		
전 체			322	100		

주 1. 입상경력의 경우 최고 실적을 반영함.

이 연구의 참여대상자는 유목적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 및 확률표본추출 중 집락표집법(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대한축구협회 주관 주말리그에 참가하는 서울·경기·경북 지역의 중·고교 축구 팀 소속 축구선수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Comrey와 Lee(1992) 및 Tabachnick와 Fidell(1996)에 따르면 연구모형 및 연구에 활용되는 척도의 요인분석을 위해 대략 300부 이상의 자료가 필요(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에서 재인용)한 점, 그리고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하여 최초 약 350명의 연구대상을 산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거된 총 364부의 자료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자료 분석에 부적합한 42부를 제외한 322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제 2 절 조사도구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변인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도출한 가상적인 구성개념인 심리적 구인으로써, 간접적인 측정만이 가능하다(탁진국, 2007). 따라서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 승부근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질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교 축구선수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 후, 지도교수 및 박사과정 수료 연구생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연구자가 완성된 모든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여 보관 및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을 제외한 각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조사에서 각 연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조사도구(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1. 승부근성 측정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정택 등(2009)이 개발한 승부근성 검사지(Questionnaire for Assessing Tenacity)를 활용했다. 이 척도는 국내 정상급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여기서 승부근성은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끈기와 의지로 극복하며, 승리하고자하는 열망을 증가시켜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하는 욕구로써 개념화된다. 이에 따라 3요인(승부욕, 투지, 자신감) 총 20문항(5점 리커트)으로 구성된 승부근성 검사지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요인 구조가 안정적이며 관련 변인과의 준거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 신뢰도와 타당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김경엽, 박정호, 2016; 김성일, 2014; 김영미 등, 2010; 김현우, 2014; 박지영 등, 2016; 이정국, 2015; 전병관, 추수진, 2011; 한승용, 2013). 응답자는 스포츠 상황을 가정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며, 응답 점수 총점이 높을수록 승부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선수의 능력 믿음 측정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Wang과 동료들(Wang & Biddle, 2003; Wang, Liu, Biddle, & Spray, 2005)의 운동능력 믿음 검사지(CNAAQ-2: the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Athletic Ability Questionnaire-2)를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스포츠 능력 믿음 척도(박중길, 김기형, 2010)를 활용했다. Dweck(1996)은 지능의 암묵적 이론 척도(Dweck et al., 1993)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arrazin 등(1996)에 의해 운동능력 믿음 검사지(CNAAQ: 6가지 운동능력믿음)가 최초 개발되었고, Wang과 동료들(Wang & Biddle, 2003; Wang et al, 2005)은 이를 발전시켜 실체 믿음과 증진 믿음의 두 가지 상위 구성개념을 바탕으

로 4개 하위 요인(실체 믿음=안정성, 재능; 증진 믿음=향상성, 학습)의 CNAAQ-2를 제작하였다. 박중길과 김기형(2010)에 의해 번안된 스포츠 능력믿음 척도는 성별과 학교급 및 종목특성별 구인 동등성의 검증을 통해 교차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척도는 4개 하위 요인별 3문항씩 총 12문항(5점 리커트)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평소 운동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응답한다. 수집된 자료는 능력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상위 구성개념(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개념 범주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믿음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측정

선수가 지각하는 지도자의 능력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스포츠 능력 믿음 척도(박중길, 김기형, 2010)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했다. 여기서 지각된 지도자의 능력 믿음은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능력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맞게 지도자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각 문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예> “나는 어느 정도 운동능력이 있지만, 실제 그 수준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



“나의 지도자는 어느 정도 운동능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그 수준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제 3 절 자료분석

질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ASW Statistics 23.0,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 및 정규분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2.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분석을 실시했다.
3.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4. 측정 변인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상관행렬 분석을 실시했다.
5.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제 4 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이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 진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로부터 검토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1706/002-011).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IRB의 승인 내용을 고지하고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의 모든 연구절차 또한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

이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322부의 자료를 토대로 스포츠 심리학 지도교수 1인과 박사과정 수료생 1인, 그리고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고, 김주환 등(2009) 및 이종환(2008) 그리고 탁진국(2007)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검증의 절차로써, 가장 먼저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왜도(skewness) ± 2 또는 첨도(kurtosis) ± 4 를 벗어나거나 문항반응집약률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김주환 등, 2009; 탁진국, 2007).

1차적인 문항선별 이후 각 조사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세희(2000)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모형오류와 자유도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하여 제시한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χ^2 , CFI, TLI(NNF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구성 타당도를 판단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χ^2 은 유의수준이 .05 이상일 경우 표본자료가 모형에 아주 잘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CFI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산출되어 현실적인 이론적 가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TLI(NNFI)로써 보완할 수 있으나, 그 값이 1.00 이상이 나타날 수 있어 해석의 용이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CFI와 TLI(NNFI) 값은 1.0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 수준

이 좋다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신뢰구간 설정 및 모형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이 가능한 RMSEA를 고려할 수 있는데, RMSEA 값은 신뢰구간 내에서 1.00 이하일 경우 수용 가능한 정도로, .08 미만일 경우 괜찮은 수준으로,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다(홍세희, 2000). 이와 더불어 김계수(2010)의 제안에 따라 각 요인에 따른 표준적재치(표준화 회귀계수 0.5 이상) 및 측정변수의 오차합을 통해 개념 신뢰도를 확인하고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와 결정계수(요인 간 상관관계수: r^2)를 활용하여 수렴 및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승부근성 검사지(신정택 등, 2009)

승부근성 검사지는 신정택 등(2009)이 국내 정상급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써, 3요인(승부욕, 투지, 자신감)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승부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승부근성 검사지의 3개 문항(12, 15, 16번)은 역코딩 문항이기 때문에, 코딩과정에서 점수를 역채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승부근성 검사지를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일부 문항(1, 3, 14번: 예, 대표 선발전 → 주전 경쟁)의 내용을 수정했다. 다음으로 322부의 자료를 토대로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왜도 및 첨도 값이 정규분포 기준치에 부합되지 않는 문항은 없었으며, 선별된 20개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 모형의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 적재치가 0.5보다 낮게 적재된 투지 요인 2개 문항(12, 14번)과 자신감 요인 3개 문항(15, 16, 20번), 총 5개 문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선별된 15개 문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χ^2 값이 218.384, 자유도는 87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 < .05$), CFI=.950, TLI=.940, RMSEA=.069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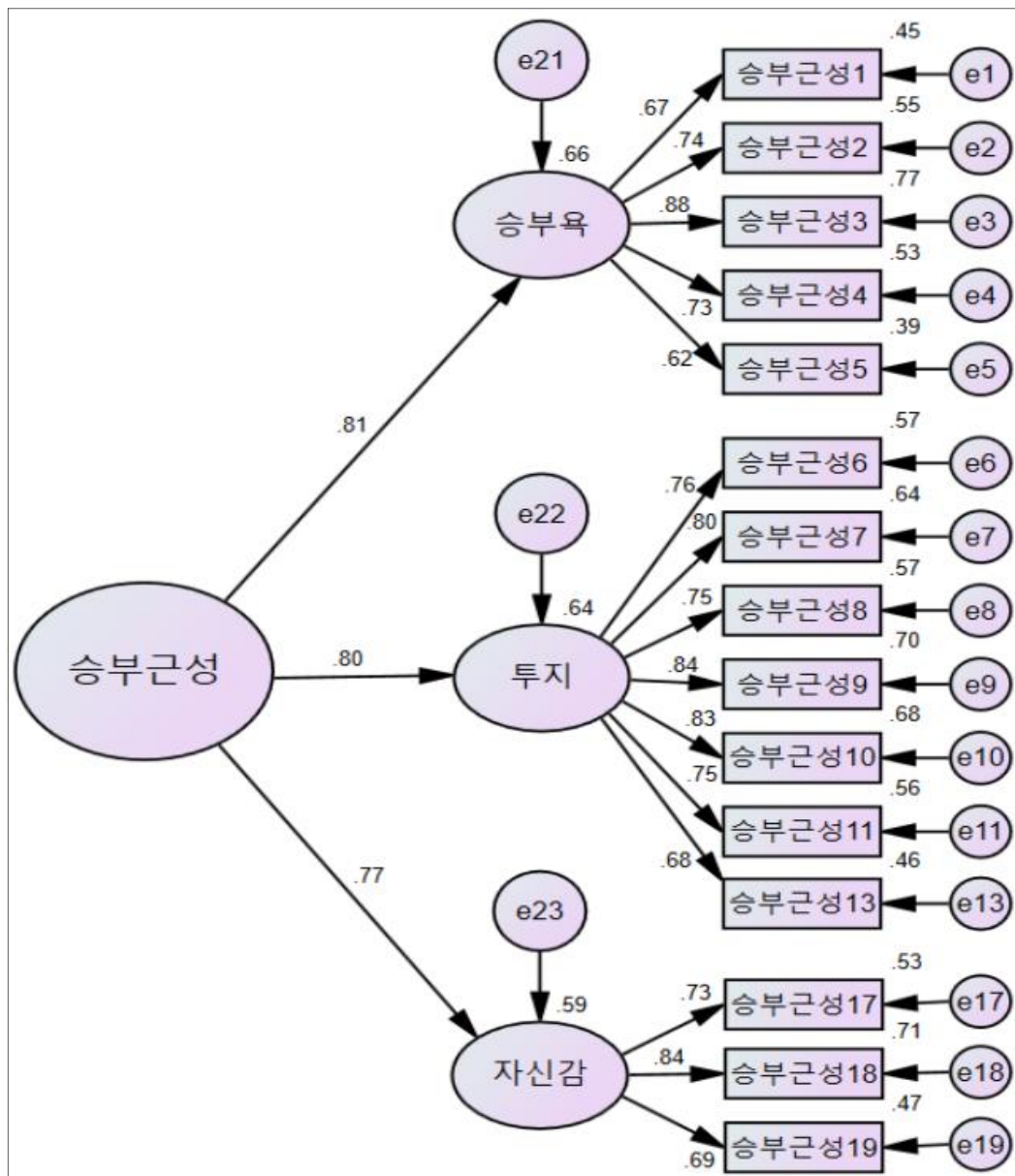


그림 3 승부근성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따라서 승부근성 검사지 최종 문항을 승부욕 5개 문항, 투지 7개 문항, 자신감 3개 문항으로 총 3요인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승부근성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Estimates	S.E.	C.R.	P	Estimates
승부근성 → 승부욕	0.838	0.079	11.357	***	0.813
승부근성 → 투지	1.000				0.801
승부근성 → 자신감	0.914	0.098	9.276	***	0.771
승부욕 → 승부근성1	0.897	0.079	11.357	***	0.668
승부욕 → 승부근성2	0.739	0.058	12.647	***	0.744
승부욕 → 승부근성3	0.941	0.064	14.627	***	0.878
승부욕 → 승부근성4	1.000				0.726
승부욕 → 승부근성5	0.552	0.052	10.552	***	0.621
투지 → 승부근성6	0.801	0.051	15.618	***	0.758
투지 → 승부근성7	0.931	0.055	16.946	***	0.801
투지 → 승부근성8	0.784	0.051	15.512	***	0.754
투지 → 승부근성9	1.000				0.835
투지 → 승부근성10	0.984	0.055	17.784	***	0.828
투지 → 승부근성11	0.955	0.062	15.29	***	0.746
투지 → 승부근성13	0.808	0.06	13.387	***	0.677
자신감 → 승부근성17	0.827	0.065	12.623	***	0.731
자신감 → 승부근성18	1.000				0.842
자신감 → 승부근성19	0.709	0.059	11.92	***	0.688

*** $p < .001$

구분	Construct Reliability	Variance Extracted
승부근성	0.924	0.802
승부욕	0.927	0.722
투지	0.940	0.691
자신감	0.880	0.712

구분	Correl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승부욕 ↔ 투지	0.651	0.424
투지 ↔ 자신감	0.617	0.381
승부욕 ↔ 자신감	0.627	0.393

모형	X^2	df	p	CFI	TLI	RMSEA
모형1	218.384	87	<0.001	0.950	0.940	0.069

2. 스포츠 능력 믿음 척도(박중길과 김기형, 2010)

스포츠 능력 믿음 척도는 Wang과 동료들(Wang & Biddle, 2003; Wang et al, 2005)의 운동능력 믿음 검사지(CNAAQ-2: the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Athletic Ability Questionnaire-2)를 박중길과 김기형(2010)이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로써, 실체 믿음과 실체 믿음의 두 가지 상위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4개 하위 요인(실체 믿음=안정성, 재능; 증진 믿음=향상성, 학습)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각 개념 범주(실체/증진)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믿음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능력 믿음 척도를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실체 믿음과 증진 믿음의 각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 개념 범주(실체/증진)로써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요인으로 구성된 선수 능력 믿음 검사지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322부의 자료를 토대로 문항분석을 통해 정규분포 기준치에 부합되지 않는 증진 믿음의 하위 요인 3개 문항(2, 4, 6번)을 삭제했으며, 선별된 9개 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 적재치가 0.5보다 낮게 적재된 실체 믿음의 하위요인 3개 문항(7, 9, 11번)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선별된 6개 문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χ^2 값이 4.846, 자유도는 8로 영가설은 기각되지 않았으며($p=.774$), CFI=1.000, TLI=1.008, RMSEA=.00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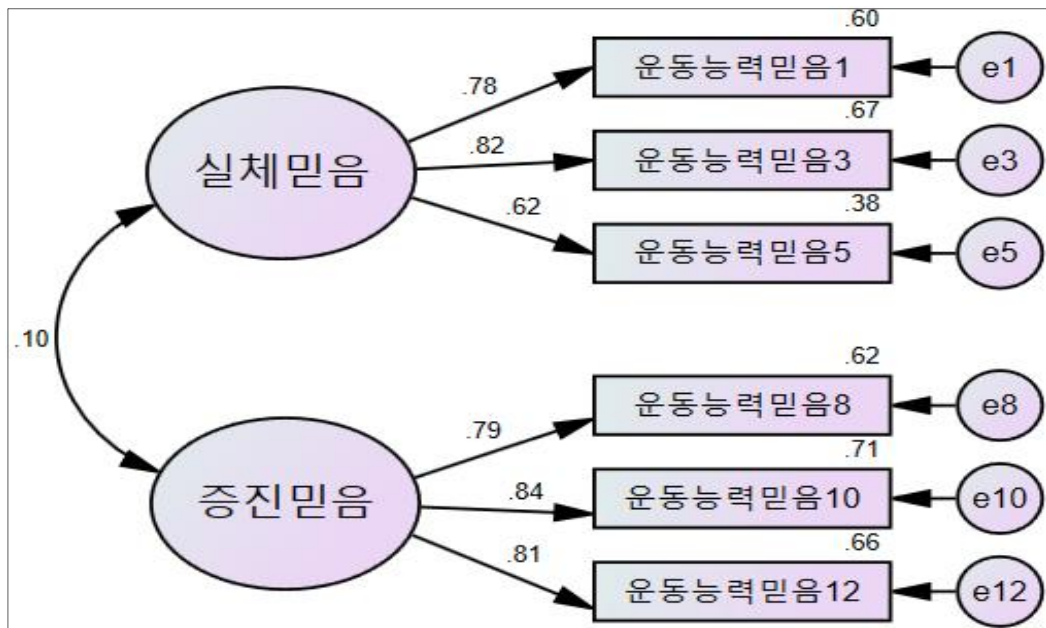


그림 4. 선수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따라서 선수 능력 믿음 검사지 최종 문항을 실체 믿음 3개 문항, 증진 믿음 3개 문항으로 총 2요인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선수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Estimates	S.E.	C.R.	P	Estimates
실체 → 운동능력믿음1		1.000				0.777
실체 → 운동능력믿음3		0.839	0.081	10.402	***	0.821
실체 → 운동능력믿음5		0.832	0.085	9.752	***	0.618
증진 → 운동능력믿음8		0.971	0.067	14.474	***	0.790
증진 → 운동능력믿음10		1.000				0.844
증진 → 운동능력믿음12		0.832	0.085	9.752	***	0.810
*** $p < .001$						
구분		Construct Reliability		Variance Extracted		
실체 믿음		0.817		0.601		
증진 믿음		0.905		0.760		
구분		Correl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실체 믿음 ↔ 증진 믿음		0.095		0.009		
모형	X^2	df	p	CFI	TLI	RMSEA
모형1	4.846	8	0.774	1.000	1.008	0.000

3.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

이 연구에서 지도자 능력 믿음에 대한 선수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능력 믿음 척도(박중길과 김기형, 2010)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했으며(예, 나는 → 나의 지도자는), 선수 능력 믿음을 측정한 것과 같이 2요인(실체 믿음, 증진 믿음)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명칭은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로 명명하였다. 문항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각 개념 범주(실체/증진)의 총점이 높을수록 지도자가 해당 믿음이 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322부의 자료를 토대로 문항분석을 통해 정규분포 기준치에 부합되지 않는 증진 믿음의 하위 요인 2개 문항(4, 6번)을 삭제했다. 다음으로 선별된 10개 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 적재치가 0.5보다 낮게 적재된 실체 믿음의 하

위요인 3개 문항(7, 9, 11번), 증진 믿음의 하위요인 1개 문항(2번)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선별된 6개 문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χ^2 값이 17.357, 자유도는 8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5$), CFI=.989, TLI=.980, RMSEA=.06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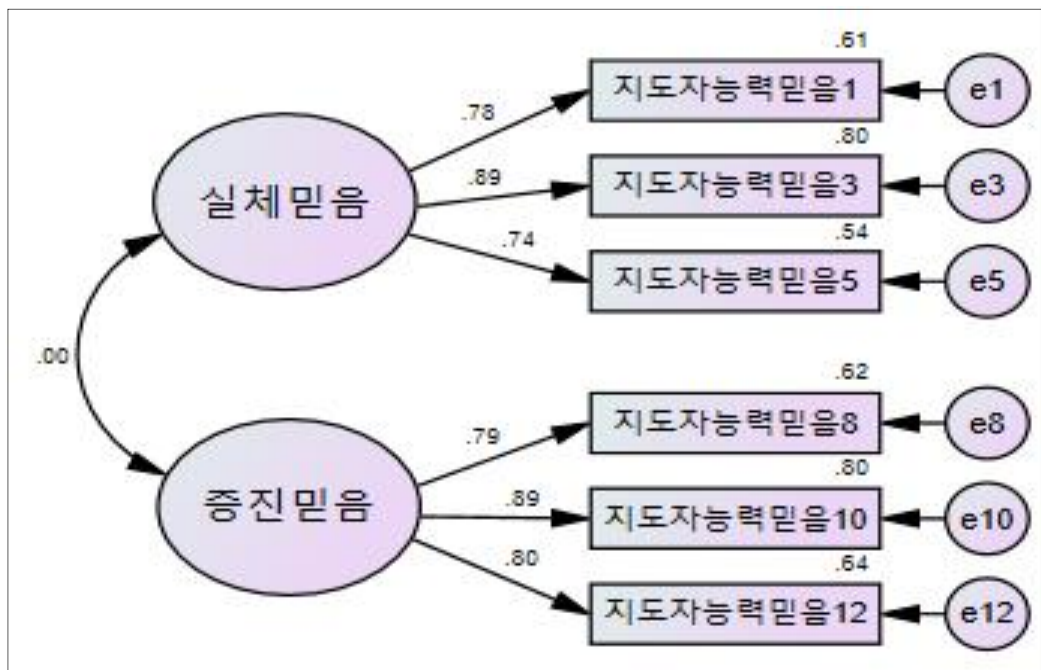


그림 5.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따라서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 최종 문항을 실체 믿음 3개 문항, 증진 믿음 3개 문항으로 총 2요인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Estimates	S.E.	C.R.	P	Estimates
실체	→ 지도자능력믿음1	0.991	0.071	13.953	***	0.780
실체	→ 지도자능력믿음3	1.000				0.895
실체	→ 지도자능력믿음5	0.877	0.066	13.337	***	0.735
증진	→ 지도자능력믿음8	0.879	0.057	15.300	***	0.786
증진	→ 지도자능력믿음10	1.000				0.893
증진	→ 지도자능력믿음12	0.896	0.058	15.534	***	0.799
*** $p < .001$						
구분		Construct Reliability			Variance Extracted	
실체 믿음		0.840			0.638	
증진 믿음		0.912			0.776	
구분		Correl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실체 믿음 ↔ 증진 믿음		0.003		0.000		
모형	X^2	df	p	CFI	TLI	RMSEA
모형1	17.357	8	0.027	0.989	0.980	0.060

제 2 절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선수 능력 믿음 2요인,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2요인, 승부근성 3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 5>와 같다.

표 5. 선수 및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승부근성의 기술통계량

변인(총 27문항)		평 균	표준편차
선수 능력 믿음 (6문항)	실 체 믿음(3)	3.87	0.73
	증 진 믿음(3)	4.32	0.70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6문항)	실 체 믿음(3)	3.27	0.89
	증 진 믿음(3)	4.30	0.70
승부근성 (15문항)	승부욕(5)	4.52	0.52
	투 지(7)	4.10	0.66
	자신감(3)	4.21	0.63
	계	4.26	0.52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능력 믿음,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그리고 승부근성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째, 능력 믿음의 경우 선수 자신과 지도자에 대한 지각 모두 증진 믿음(선수: $M=4.32$, $SD=.70$ / 지도자: $M=4.30$, $SD=.70$)이 실체 믿음(선수: $M=3.87$, $SD=.73$ / 지도자: $M=3.27$, $SD=.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승부근성($M=4.26$, $SD=.52$)은 3개의 하위요인 중 승부욕($M=4.52$, $SD=.5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M=4.21$, $SD=.63$)과 투지($M=4.10$, $SD=.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 3 절 배경 변인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이 연구에서 선정한 배경 변인은 학년, 운동경력, 주전여부 인식, 그리고 개인/단체 입상유무이며, 이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이종환(2008)의 제시에 따라, 일원분산분석 시에는 정규성 가정과 등분산성 가정, 그리고 독립성 검증을 통해 자료 분석의 기본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

1. 학년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청소년 축구선수의 학년(중1~고3)에 따른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년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종속변수	구 분	학년 구분					
		중1 (n=77)	중2 (n=65)	중3 (n=59)	고1 (n=48)	고2 (n=42)	고3 (n=31)
선수 실체 믿음	평 균	3.77	3.74	4.03	3.66	4.13	4.03
	표준편차	0.71	0.76	0.72	0.81	0.68	0.52
	<i>F</i>	3.542**					
	Tukey's test	고1 < 고2					
선수 증진 믿음	평 균	4.51	4.26	4.21	4.37	4.25	4.15
	표준편차	0.56	0.69	0.72	0.76	0.69	0.81
	<i>F</i>	2.145					
	Tukey's test	-					
지도자 실체 믿음	평 균	3.25	3.22	3.29	3.17	3.28	3.57
	표준편차	0.96	0.97	0.84	0.91	0.80	0.63
	<i>F</i>	0.892					
	Tukey's test	-					
지도자 증진 믿음	평 균	4.52	4.23	4.25	4.38	4.08	4.18
	표준편차	0.56	0.78	0.75	0.58	0.81	0.65
	<i>F</i>	2.936*					
	Tukey's test	고2 < 중1					
승부근성	평 균	4.42	4.27	4.27	4.19	4.13	4.12
	표준편차	0.45	0.52	0.53	0.58	0.50	0.53
	<i>F</i>	2.724*					
	Tukey's test	고2 < 중1					

* $p < .05$, ** $p < .01$

<표 6>을 살펴보면, 선수 실체 믿음($F=3.542$, $p<.01$),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F=2.936$, $p<.05$), 그리고 승부근성($F=2.724$, $p<.05$)에 있어 청소년 축구선수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선수 실체 믿음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2학년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보다,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 및 승부근성에 있어서는 중학교 1학년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축구선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때, 실체 믿음(선수/지도자)에 있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증진 믿음(선수/지도자) 및 승부근성에 있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학년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하여 Leven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을 위해 런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반면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각 학년 집단의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점수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각각의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2. 운동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청소년 축구선수의 운동경력(년)에 따른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운동경력은 1~12년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용이하고 명확한 비교를 위해 3년 단위로 운동경력을 4집단으로 범주화 하였다(예, 1집단=1~3년, ... 4집단=10~12년).

표 7. 운동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종속변수	구 분	운동경력 구분			
		1~3년 (n=81)	4~6년 (n=148)	7~9년 (n=71)	10~12년 (n=22)
선수 실체 믿음	평 균	3.74	3.87	3.96	3.87
	표준편차	0.71	0.76	0.73	0.64
	<i>F</i>	1.263			
	Tukey's test	-			
선수 증진 믿음	평 균	4.33	4.27	4.39	4.38
	표준편차	0.63	0.71	0.71	0.76
	<i>F</i>	0.557			
	Tukey's test	-			
지도자 실체 믿음	평 균	3.13	3.31	3.31	3.45
	표준편차	0.87	0.92	0.88	0.66
	<i>F</i>	1.159			
	Tukey's test	-			
지도자 증진 믿음	평 균	4.37	4.25	4.32	4.30
	표준편차	0.66	0.72	0.74	0.62
	<i>F</i>	0.547			
	Tukey's test	-			
승부근성	평 균	4.30	4.22	4.32	4.15
	표준편차	0.46	0.56	0.49	0.51
	<i>F</i>	1.072			
	Tukey's test	-			

<표 7>을 살펴보면, 청소년 축구선수의 운동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유의한 차이가 어느 영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때, 실체 믿음(선수/지도자)에 있어서는 운동경력이 오래될수록 대체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운동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하여 Leven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운동경력에 따른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을 위해 런 검증(Runs test)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운동경력에 따른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반면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각 운동경력 집단의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점수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각각의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3.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청소년 축구선수의 주전여부 인식(후보/로테이션/주전)에 따른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종속변수	구 분	주전여부 구분		
		후보 (n=63)	로테이션 (n=87)	주전 (n=172)
선수 실체 믿음	평 균	3.63	4.01	3.88
	표준편차	0.76	0.66	0.74
	F		5.065**	
	Tukey's test		후보 < 로테이션, 주전	
선수 증진 믿음	평 균	4.26	4.31	4.34
	표준편차	0.67	0.73	0.69
	F		0.328	
	Tukey's test		-	
지도자 실체 믿음	평 균	3.16	3.38	3.26
	표준편차	0.89	0.79	0.93
	F		1.074	
	Tukey's test		-	
지도자 증진 믿음	평 균	4.28	4.28	4.32
	표준편차	0.66	0.69	0.72
	F		0.116	
	Tukey's test		-	
승부근성	평 균	4.07	4.36	4.28
	표준편차	0.57	0.47	0.51
	F		6.108**	
	Tukey's test		후보 < 로테이션, 주전	

**p < .01

<표 8>을 살펴보면, 선수 실체 믿음($F=5.065$, $p<.01$)과 승부근성($F=6.108$, $p<.01$)에 있어 청소년 축구선수의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자신을 주전 또는 로테이션으로 인식하는 선수들이 후보로 지각하는 선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실체 믿음 및 승부근성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후보로 인식하는 선수가 주전 또는 로테이션으로 인식하는 선수보다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하여 Leven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을 위해 런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주전여부 인식에 따른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반면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각 주전여부 인식 집단의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점수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각각의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4. 개인/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청소년 축구선수의 개인 입상경력(없음/시대회/도대회/전국대회)에 따른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개인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종속변수	구 분	개인 입상경력 구분			
		없음 (n=197)	시대회 (n=25)	도대회 (n=21)	전국대회 (n=79)
선수 실체 믿음	평 균	3.82	3.89	3.84	3.99
	표준편차	0.77	0.75	0.81	0.60
	F			1.054	
	Tukey's test			-	
선수 증진 믿음	평 균	4.29	4.40	4.27	4.38
	표준편차	0.72	0.56	0.58	0.71
	F			0.465	
	Tukey's test			-	
지도자 실체 믿음	평 균	3.17	3.43	3.21	3.51
	표준편차	0.89	0.87	0.80	0.87
	F			3.111*	
	Tukey's test		없음 < 전국대회		
지도자 증진 믿음	평 균	4.34	4.11	4.14	4.32
	표준편차	0.69	0.98	0.66	0.62
	F			1.163	
	Tukey's test			-	
승부근성	평 균	4.24	4.31	4.22	4.31
	표준편차	0.55	0.38	0.47	0.49
	F			0.561	
	Tukey's test			-	

* $p < .05$

<표 9>를 살펴보면, 지도자 실체 믿음($F=3.111$, $p<.05$)에 있어 청소년 축구선수의 개인 입상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개인 입상경력이 없는 청소년 축구선수들보다 전국대회 개인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의 지각된 지도자 실체 믿음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개인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하여 Leven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개인 입상경력에 따른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을 위해 런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개인 입상경력에 따른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반면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각 개인 입상여부 집단의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점수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각각의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축구선수의 단체 입상경력(없음/시대회/도대회/전국대회)에 따른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종속변수	구 분	단체 입상경력 구분			
		없음 (n=86)	시대회 (n=34)	도대회 (n=18)	전국대회 (n=184)
선수 실체 믿음	평 균	3.68	3.73	3.89	3.97
	표준편차	0.80	0.78	0.80	0.67
	F	3.668*			
	Tukey's test	없음 < 전국대회			
선수 증진 믿음	평 균	4.28	4.35	4.19	4.34
	표준편차	0.71	0.70	0.81	0.68
	F	0.417			
	Tukey's test	-			
지도자 실체 믿음	평 균	3.20	3.20	3.04	3.35
	표준편차	0.92	0.83	1.24	0.84
	F	.871			
	Tukey's test	-			
지도자 증진 믿음	평 균	4.27	4.29	4.30	4.32
	표준편차	0.67	0.80	0.95	0.68
	F	.077			
	Tukey's test	-			
승부근성	평 균	4.22	4.31	4.16	4.28
	표준편차	0.50	0.59	0.56	0.51
	F	.569			
	Tukey's test	-			

* $p < .05$

<표 10>을 살펴보면, 선수 실체 믿음($F=3.668, p<.05$)에 있어 청소년 축구선수의 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단체 입상경력이 없는 청소년 축구선수들보다 전국대회 단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의 선수 실체 믿음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하여 Leven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을 위해 런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단체 입상경력에 따른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반면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각 단체 입상여부 집단의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 점수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각각의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제 4 절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및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연구변인을 연속형 변수로 가정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을 살펴보면, 우선 각 변인을 측정한 표본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 $\alpha=.768\sim.920$). 변인 간 상관관계수에 있어서 첫 째, 종속변인인 승부근성은 독립변인인 선수 및 지도자 능력 믿음 중 실체 믿음(선수: $r=.109, p<.05$ / 지도자: $r=.111, p<.05$) 및 증진 믿음(선수: $r=.385, p<.01$ / 지도자: $r=.315,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패턴은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실체 믿음: $r=.138\sim.144$ / 증진 믿음: $r=.188\sim.248$), 투지 및 자신감에서는 증진 믿음만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260\sim.364$).

한편, 선수 실체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실체 믿음 사이에는 $.406(p<.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 사이에는 $.495(p<.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배경학적 변인 중 운동경력은 선수 실체 믿음($r=.116,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학급/학년의 경우 선수 실체 믿음($r=.132,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선수 증진 믿음($r=-.122, p<.05$)과 지도자 증진 믿음($r=-.147, p<.01$) 및 승부근성($r=-.191, p<.01$), 투지($r=-.201, p<.01$), 자신감($r=-.202,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주전여부의 경우 승부근성($r=.118, p<.05$) 및 이의 하위요인인 투지($r=.120, p<.05$), 자신감($r=.13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1. 상관관계(Correlation) 및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운동경력	–												
2 학급/학년	0.701**	–											
3 주전여부 인식	-0.053	-0.150**	–										
4 개인 입상경력	0.254**	0.180**	0.090	–									
5 단체 입상경력	0.305**	0.224**	0.130*	0.398**	–								
6 선수 실체 믿음	0.116*	0.132*	0.094	0.094	0.181**	(0.768)							
7 선수 중진 믿음	0.012	-0.122*	0.045	0.050	0.035	0.084	(0.855)						
8 지도자 실체 믿음	0.096	0.066	0.022	0.154**	0.077	0.406**	0.038	(0.841)					
9 지도자 중진 믿음	-0.014	-0.147**	0.024	-0.026	0.027	0.087	0.495**	0.008	(0.865)				
10 승부근성	-0.035	-0.191**	0.118*	0.059	0.038	0.109*	0.385**	0.111*	0.315**	(0.920)			
11 승부욕	0.042	-0.071	0.044	0.107	0.083	0.138*	0.248**	0.144**	0.188**	0.820**	(0.838)		
12 투지	-0.050	-0.201**	0.120*	0.025	0.011	0.096	0.363**	0.076	0.320**	0.924**	0.600**	(0.910)	
13 자신감	-0.082	-0.202**	0.135*	0.035	0.014	0.027	0.364**	0.077	0.260**	0.748**	0.544**	0.550**	(0.790)

주 1. 대각선 괄호 안은 해당 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나타냄.

주 2. 학급/학년은 중1=1, 중2=2, 중3=3, 고1=4, 고2=5, 고3=6; 주전여부는 후보=1, 로테이션=2, 주전=3; 개인 및 단체 입상경력은 없음=1, 시대회=2, 도대회=3, 전국대회=4로 코딩하였음.

$n=322$, * $p < .05$, ** $p < .0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상의 상관관계 결과 및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승부근성 및 이의 하위요인(승부욕, 투지, 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 및 하위요인을 독립변수(예측변인)로 설정하여 승부근성 및 이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준거변인)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 때, 영향력 있는 변수를 찾아내거나 변수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해 단계별 변수가 투입될 때마다 투입된 모든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채택하여 최종 회귀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이종환, 2008),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VIF
		<i>B</i>	<i>SE</i>	β		
승부근성	(상 수)	2.776	0.221		12.542***	
	선수 중진 믿음	0.216	0.043	0.290	4.991***	1.332
	지도자 중진 믿음	0.111	0.043	0.150	2.572*	1.031
	지도자 실체 믿음	0.064	0.030	0.190	2.151*	1.338
	학급/학년	-0.045	0.016	-0.141	-2.764**	1.007
	$R^2=0.198$, Adjusted $R^2=0.188$, $F=19.540$ ***					
승부욕	(상 수)	3.476	0.200		17.341***	
	선수 중진 믿음	0.182	0.040	0.243	4.520***	1.001
	지도자 실체 믿음	0.079	0.032	0.134	2.500*	1.001
	$R^2=0.080$, Adjusted $R^2=0.074$, $F=13.787$ ***					
투지	(상 수)	2.519	0.261		9.657***	
	선수 중진 믿음	0.248	0.055	0.262	4.464***	1.329
	지도자 중진 믿음	0.159	0.055	0.170	2.883**	1.338
	학급/학년	-0.058	0.021	-0.145	-2.807**	1.025
	$R^2=0.178$, Adjusted $R^2=0.171$, $F=23.018$ ***					
자신감	(상 수)	3.057	0.219		13.958***	
	선수 중진 믿음	0.310	0.047	0.344	6.648***	1.015
	학급/학년	-0.061	0.020	-0.159	-3.079**	1.015
	$R^2=0.157$, Adjusted $R^2=0.152$, $F=29.784$ ***					

* $p < .05$, ** $p < .01$, *** $p < .001$

<표 12>를 살펴보면, 승부근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19.8%이며,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선수 증진 믿음($\beta=.290$), 지도자 실체 믿음($\beta=.190$), 지도자 증진 믿음($\beta=.150$), 학급/학년($\beta=-.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8.0%이며,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선수 증진 믿음($\beta=.243$), 지도자 실체 믿음($\beta=.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투지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17.8%이며,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선수 증진 믿음($\beta=.262$), 지도자 증진 믿음($\beta=.170$), 학급/학년($\beta=-.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15.7%이며,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선수 증진 믿음($\beta=.344$), 학급/학년($\beta=-.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각 회귀모형에서 준거변인을 예측하는 둘 이상의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OL) 검정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 또한 1.822~1.898로 나타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독립성 조건을 충족시켰다.

제 5 절 조절효과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 연구 모형2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이 각각 승부근성 및 이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효과에서 선수 능력 믿음 및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고자 설정되었다. 특히 연구 가설과 더불어 앞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서

일관성 있게 승부근성 및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지니는 선수 및 지도자 증진 믿음 요인 간 상호작용, 즉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조절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가 있다고 한다(홍세희, 정송, 2014). 조절효과 검증의 절차로써 서영석(2010)이 제시한 고려 사항을 토대로, 1단계 및 2단계에서 독립변수(예측변인)와 조절변수(중재변인)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 예측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 항²⁾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조절효과의 여부는 회귀 모형 3단계에서 나타나는 R^2 변화량(ΔR^2)이 유의한지 확인 후, 산출된 회귀식(회귀계수)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을 통해 판단하는 총체적 검증(omnibus test)으로써 확인하였다(배병렬, 2015). 이 때,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 해석은 상호작용 변인이 적절한 절차로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표준화 계수를 적용한다(서영석, 2010). 또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pm 1SD$ 값에서의 종속변수 추정값을 통해 그래프를 도식화하였다. 이는 연구변인들이 연속변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종 오류 및 2종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집단 구분을 지양해야 한다는 서영석(2010)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1.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2) 상호작용 항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고 해석의 용이성을 돕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 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표 13.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승부근성)

구 분		승부근성							
		β	t	R^2	ΔR^2	ΔF			
1	선수 증진 믿음	0.288	7.466***	0.148	-	55.745***			
2	선수 증진 믿음	0.227	5.171***	0.169	0.020	7.820**			
	지도자 증진 믿음	0.122	2.796**						
3	선수 증진 믿음	0.256	5.805***	0.196	0.027	10.819**			
	지도자 증진 믿음	0.129	2.995**						
	선수 증진 믿음 x	0.191	3.289**						
	지도자 증진 믿음								

** $p < .01$, *** $p < .001$

먼저, 준거변인을 예측하는 둘 이상의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과 공차한계 검정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이하(1.072~1.381)로 나타났고 TOL 값은 0.1 이상(.724~.9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Durbin-Watson 값 또한 1.792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독립성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Delta R^2=.027$, $p<.01$),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회귀계수($\beta=.191$, $p<.01$)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선수 증진 믿음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pm 1SD$ 점수의 종속변수 추정값을 통해 그래프를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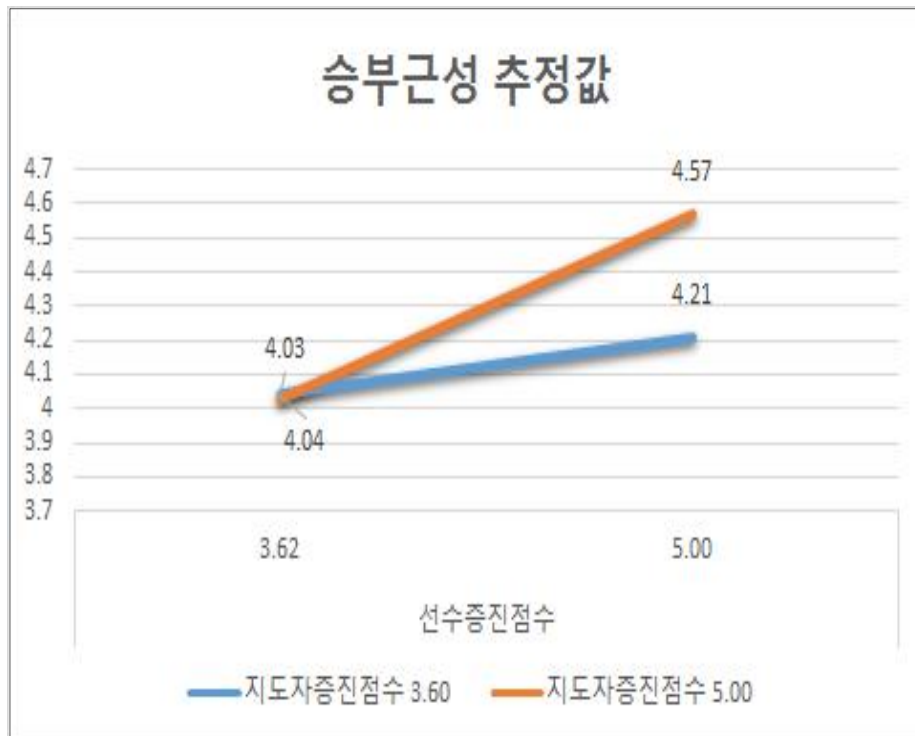


그림 6.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승부근성)

<그림 6>에서 보듯이, 지도자 증진 믿음을 높게 지각할 경우 선수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상호작용과 조절변수가 모두 유의하기 때문에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은 유사 조절변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적 강화효과(synergistic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2.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과 승부욕의 관계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이 승부근성 하위 요인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승부욕)

구 분		승부욕							
		β	t	R^2	ΔR^2	ΔF			
1	선수 증진 믿음	0.185	4.580***	0.062	-	20.979***			
2	선수 증진 믿음	0.154	3.301**	0.067	0.006	1.910			
	지도자 증진 믿음	0.064	1.382						
3	선수 증진 믿음	0.171	3.606***	0.076	0.009	3.225			
	지도자 증진 믿음	0.068	1.472						
	선수 증진 믿음	0.112	1.796						
	지도자 증진 믿음								

** $p < .01$, *** $p < .001$

먼저, 준거변인을 예측하는 둘 이상의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과 공차한계 검정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이하(1.072~1.381)로 나타났고 TOL 값은 0.1 이상(.724~.9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Durbin-Watson 값 또한 1.839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독립성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 14>의 결과에 따르면,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Delta R^2=.009$, $p=.073$),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beta=.112$, $p=.073$)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수 증진 믿음이 승부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pm 1SD$ 점수의 종속변수 추정값을 통해 그래프를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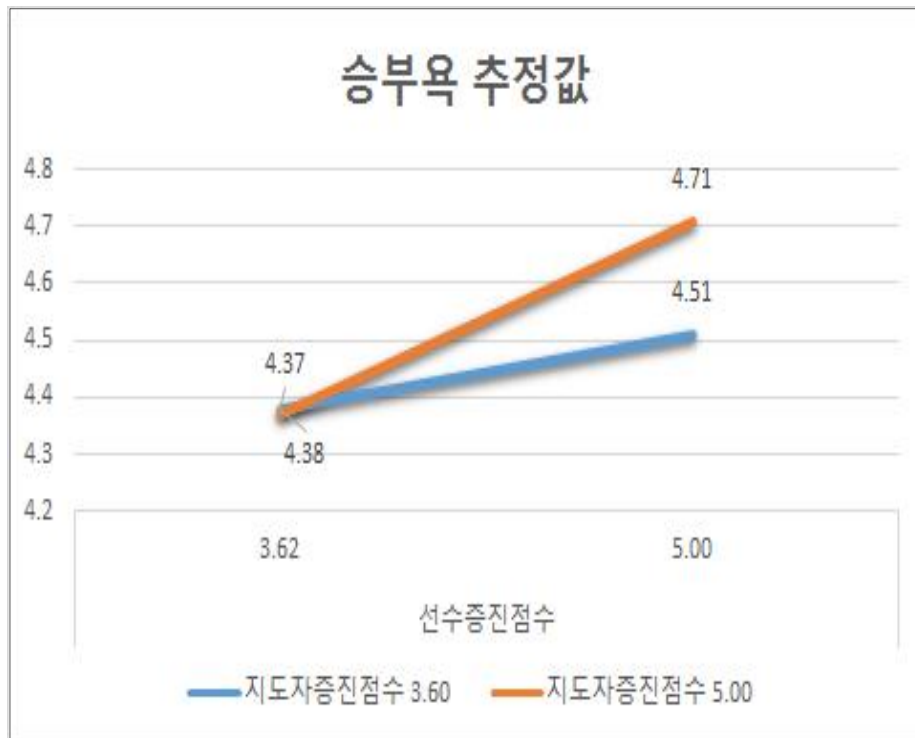


그림 7.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승부욕)

3.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과 투지의 관계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 투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투지)

	구 분	투 지				
		β	t	R^2	ΔR^2	ΔF
1	선수 증진 믿음	0.344	6.973***	0.132	-	48.628**
2	선수 증진 믿음	0.257	4.584***	0.158	0.026	9.905**
	지도자 증진 믿음	0.175	3.147**			
3	선수 증진 믿음	0.296	5.281***	0.190	0.032	12.458***
	지도자 증진 믿음	0.184	3.370**			
	선수 증진 믿음 x 지도자 증진 믿음	0.261	3.530***			

** $p < .01$, *** $p < .001$

먼저, 준거변인을 예측하는 둘 이상의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과 공차한계 검정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이하(1.072~1.381)로 나타났고 TOL 값은 0.1 이상(.724~.9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Durbin-Watson 값 또한 1.827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독립성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 15>의 결과에 따르면,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Delta R^2=.032$, $p<.001$),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회귀계수($\beta=.261$, $p<.001$)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선수 증진 믿음이 투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pm 1SD$ 점수의 종속변수 추정값을 통해 그래프를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투지)

<그림 8>에서 보듯이, 지도자 증진 믿음을 높게 지각할 경우 선수 증진 믿음과 투지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상호작용과 조절변수가 모두 유의하기 때문에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은 유사 조절변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적 강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과 자신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이 승부욕의 하위 요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자신감)

구 분		자신감							
		β	t	R^2	ΔR^2	ΔF			
1	선수 증진 믿음	0.327	6.986***	0.132	—	48.799***			
2	선수 증진 믿음	0.280	5.211***	0.141	0.008	3.152			
	지도자 증진 믿음	0.095	1.775						
3	선수 증진 믿음	0.305	5.585***	0.154	0.013	4.982*			
	지도자 증진 믿음	0.100	1.893						
	선수 증진 믿음	0.160	2.232*						
	지도자 증진 믿음								

* $p < .05$, *** $p < .001$

먼저, 준거변인을 예측하는 둘 이상의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과 공차한계 검정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이하(1.072~1.381)로 나타났고 TOL 값은 0.1 이상(.724~.9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Durbin-Watson 값 또한 1.858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독립성 조건을 충

족시켰다.

<표 16>의 결과에 따르면,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Delta R^2=.013$, $p<.05$),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회귀계수($\beta=.160$, $p<.05$)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선수 증진 믿음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pm 1SD$ 점수의 종속변수 추정값을 통해 그래프를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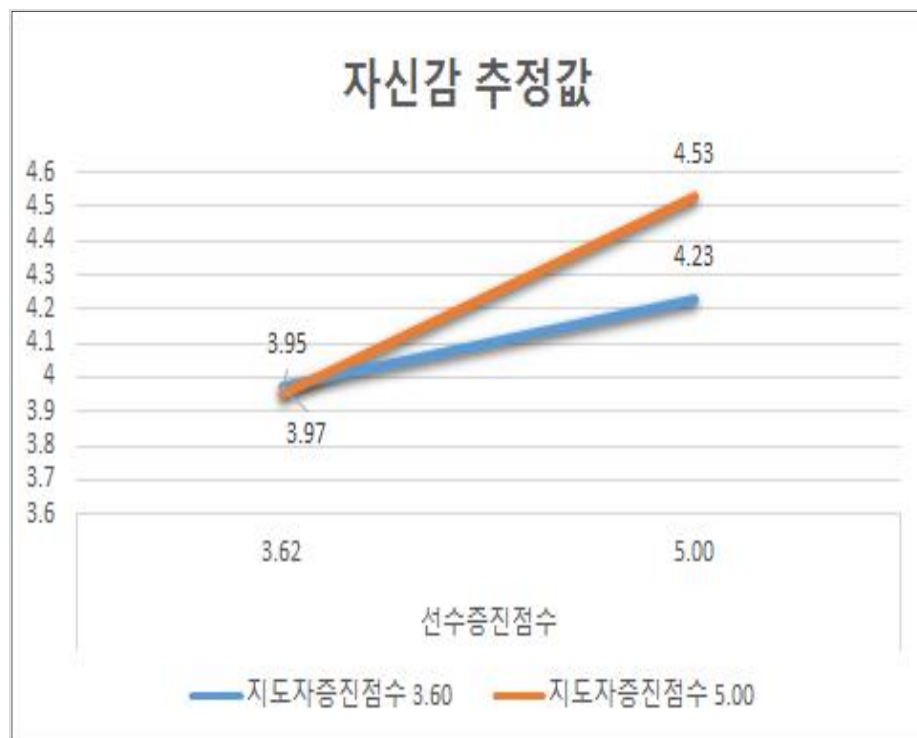


그림 9.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 그래프(자신감)

<그림 9>에서 보듯이, 지도자 증진 믿음을 높게 지각할 경우 선수 증진 믿음과 자신감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상호작용과 조절변수가 모두 유의하기 때문에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은 유사 조절변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적 강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논의

이 연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쟁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러한 심리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선수의 능력 믿음 및 지도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의 효과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승부근성으로 개념화되었고,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선수가 지닌 능력 믿음 중에서는 증진 믿음만이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도자의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의 경우 증진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믿음에 대한 지각 또한 승부근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선수 증진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은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제 믿음에 대한 지각은 높아지는 반면,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과 승부근성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선수의 학년 변인은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은 정신적 강인함이며, 이는 대상 및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부근성으로 개념화되었다. 매주 반복되는 학교 축구팀 리그 제도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쟁상황 속에 처해진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많은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권오성 등, 2015; 이원희 등, 2011; 전성미 등, 2010; 허정훈, 안성훈, 2015; Balaguer et al.,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적 측면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윤영길, 2004, 2013; 윤영길, 김원배, 2004; 윤영길, 이용수, 2006; Coulter et al., 2010; Diment, 2014; Thelwell et al., 2005). 다만,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지금껏 논의되어 온 정신적 강인함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됨과 더불어 합의된 정의가 없는 실정임을 고려하여(김원배, 2002; Crust, 2007, 2008 Crust & Clough, 2005, 2011), 김원배(2001) 및 Weinberg 등(2011)의 제안에 따라 대상 및 과제의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을 개념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을 도출한 윤영길(2004, 2009, 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승부욕, 투지)을 포괄하는 승부근성(신정택 등, 2009)이 그들의 정신적 강인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으로써 정신적 강인함은 승부근성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이는 성공에 대한 성취 욕구를 바탕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확신으로써, 승부욕, 투지, 자신감으로 구성된 한국 운동선수 특유의 정신적 강인함을 의미한다(신정택 등, 2009).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자신감), 어려운 역경에서도 끈기와 의지로 극복하며(투지), 승리하고자하는 열망을 증가시켜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하는 욕구(승부욕)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김경엽, 박정호, 2016; 전병관, 추수진, 2011), 각 하위 구성개념의 의미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 있다. 이는 종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심리적 능력이 다를 수 있음에도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으로 승부근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김영미 등, 2010; 김현우, 2014; 전병관, 추수진, 2011), 청소년 축구선수가 처한 경쟁 상황 및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능력을 검토하여 접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스포츠 행동의 특수성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유진, 2000; 한규석, 2002). 다만 이와 같은 개념화는 연구 변인 및 대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뤄진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심리적 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Jones 등 (2002, 2007), 박혜주(2014) 및 Thelwell 등(2005)의 연구와 같이 개인구성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축구선수 및 관련 주요 타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경험적인 자료를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다.

둘 째, 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 상황의 선행 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은 실제 믿음을 고려한 능력 믿음과 지도자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의 영향력을 각각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각 중 증진 믿음은 승부근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실제 믿음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청소년 축구선수의 지각은 증진 믿음과 실제 믿음 모두 승부근성 및 하위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가 운동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또는 지도자가 지닌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높게 지각할수록 경쟁상황에서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승부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도자가 실제 믿음을 지녔다는 지각 또한 선수의 승부근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을 통해 능력 믿음이라는 변인을 제시한 Dweck과 동료들(Dweck, 2000, 2016, 2017a, 2017b; Dweck & Leggett, 1988; Molden & Dweck, 2006)에 따르면 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실패 경험이 동반되는 학습 및 과제 수행에서의 지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증진 믿음은 적응적 반응과 관련되는 반면, 실제 믿음은 부적응적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믿음 또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부족함 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되기 때문에(Dweck et al., 1995), 지도자가 지닌 실제 믿음에 대한 지각은 선수가 지닌 재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휘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써 작용하여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인 승부근성과 같은 정신적 강인함의 형성 및 발달은 주요 타자, 특히 지도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Gucciardi et al., 2009; Jones et al., 2002, 2007; Thelwell et

al., 2005)과 기업 상황에서 상사가 지니는 능력가변성에 대한 신념이 부하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조직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이나경, 유태용, 2015; 한길화, 2011; Heslin et al., 2005; Whiteley & Johnson, 2012), 스포츠 상황에서 지도자가 지니는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의 효과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축구선수의 성취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지닌 능력 믿음뿐만 아니라 주요 타자인 지도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지도자가 지닌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이 선수 자신에 대한 기대 또는 호의적인 대우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이제까지 교육장면에서 논의되어온 피그말리온 효과(자기충족적 예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인수, 서용원, 2001; 이나경, 유태용, 2015).

셋 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념화된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 그리고 새로이 개념화한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이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능력 믿음과 관련해서는 실제 믿음보다 증진 믿음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부근성의 경우 5점 리커트 평정을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능력 믿음에 대한 이러한 경향성은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운동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서 타고난 능력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기보다는 개인의 노력 또는 학습을 통해서 능력이 변화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외 스포츠 및 운동 상황에서의 관련 선행 연구(김인수, 2015; 김현남, 2010; 박중길, 2012; 박중길, 김기형, 2010; 이혜선, 양명환, 2013; Wang & Biddle, 2003; Wang et al., 2009) 및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의 관련 선행 연구(민경훈, 정한기, 2012; 안도희, 2013; 이수경, 2016)와도 유사한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승부근성 및 하위 요인들의 평균 점수 또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약 4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과 같이 측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공통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을 짐작케 한다(신명진, 2015). 공통방법편의

란 측정 시 존재하는 맥락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오류로써, 이에 따라 설문조사와 같은 측정과정에서 실제 현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신명진, 이근철, 2014).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노력과 학습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자신이 높은 승부근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경쟁상황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로서 보다 바람직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응답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청소년 축구선수가 증진 믿음을 실제 믿음 보다 높게 자각하다 보니, Dweck 등(1995)이 제시한 것과 달리 특정 영역에서 한 개인이 대체로 한 가지 신념이 우월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차후 논의하게 될 조절효과 검증단계에서도 상호작용에 의한 승부근성(종속변수)의 효과성도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제한점이 일부 추측되기는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경향성을 통해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닌 일반적인 인식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넷 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집단 간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과 승부근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선수 실체 믿음과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 및 승부근성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전여부 인식에 따라서는 선수 실체 믿음 및 승부근성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 입상경력에 따라서는 지각된 지도자 실체 믿음에 있어서, 단체 입상경력에 따라서는 선수 실체 믿음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경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선수 실체 믿음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보다 높았고, 자신을 로테이션 및 주전으로 인식하는 선수들이 후보로 인식하는 선수들보다 높았으며, 전국대회 이상의 단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단체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들보다 높았지만, 선수 증진 믿음의 경우 어떠한 집

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지도자 실체 믿음에 대한 지각은 자신을 로테이션 및 주전으로 인식하는 선수들이 후보로 인식하는 선수들보다 높았으며, 지도자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선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승부근성에 있어서도 중학교 1학년 선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보다 높았으며, 자신을 로테이션 및 주전으로 인식하는 선수들이 후보로 인식하는 선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와 더불어 집단별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배경 변인에 따른 연구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논의해보면, 타고난 운동 능력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실체 믿음의 경우 학년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체 믿음에 대한 지각이 더 강해진다는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한다(박중길, 김기형, 2010; Frederick & Eccles, 2002).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명진과 봉미미(2013)의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패경험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주전여부 인식이나 입상경력에 있어서 나타난 실체 믿음에 대한 집단 차이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은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후보보다는 로테이션 또는 주전으로 기용될 확률이 높고, 마찬가지로 개인 및 단체 입상경력에서 더 상위 수준의 입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측면에서 유사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운동경력 및 학년 집단에 따른 선수 증진 믿음의 일반적 경향성과 더불어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 및 승부근성에 있어서 나타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다 어린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증진 믿음 요인과 승부근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승부근성과 같은 운동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이 경쟁 상황 속 사회환경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박혜주, 2014; Connaughton, et al., 2008; Drees & Mack, 2012; Gucciardi et al., 2015;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a; Weinberg et al., 2016; Weinberg, et al., 2011), 노력이나 전략과 같은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은 수행자가 증진 믿음과 관련된 반응 양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김옥분, 김혜진, 2013; 안도희, 2013; Dweck, 2017a, 2017b; Mueller & Dweck, 1998),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짐작케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가설과 더불어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과정에서 투입한 청소년 축구선수의 학년 변인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능력 믿음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이며(박중길, 김기형, 2010; Frederick & Eccles, 200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믿음은 높아지며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통해,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은 선수의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의 관계를 더욱 정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 1 표준편차 점수를 기준으로 상호작용 패턴을 도식화해본 결과, 지도자 증진 믿음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 간의 정적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에 있어서 증진 믿음을 높게 지니고 지도자 증진 믿음에 대해서도 높게 지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통계적 결과 해석에 있어서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회귀식의 설명량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과 더불어 실제 현상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실제적 유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김계수, 2010),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쟁상황에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승부근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역할을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스포츠가 지닌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운동선수들은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적 측면이 강조된다(김원배, 2002; 박혜주, 2014; 신정택 등, 2009; Golby et al., 2007; Gould et al., 2002; Gucciardi & Gordon, 2009; Gucciardi et al., 2009; Gucciardi et al., 2015). 실제 스포츠 현장에 참여하는 지도자 및 선수들은 경쟁상황에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수의 심리적 준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박혜주, 2014; Creasy, 2005; Crust et al., 2011; Jones et al., 2002, 2007; Weinberg et al., 2011), 그러한 심리적 요인을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신적 강인함으로 개념화한다(Crust, 2007, 2008; Crust & Clough, 2011; Weinberg et al., 2016).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합의되지는 못한 실정이지만(김원배, 2002; Creasy, 2005; Gould et al., 2002;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b; Thelwell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문화특수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을 승부근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김원배, 2001; 신정택 등, 2009; 윤영길, 2004, 2006; Weinberg et al., 2011). 그리고 이것이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발달되는 전형적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박혜주, 2014; Connaughton, et al., 2008; Drees & Mack, 2012; Gucciardi et al., 2015; Jones et al., 2002, 2007; Middleton et al., 2004a; Weinberg et al., 2016; Weinberg, et al., 2011), 성취경험에 대한 반응양식을 결정하는 능력 믿음을 통해 승부근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Dweck et al., 1995; Dweck & Leggett, 1988). 또한 운동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역할과 승부근성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도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함께 검증해보고자 하였다(Jones et al., 2002, 2007; Jowett & Spray, 2013). 즉,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지닌 능력의 본질에 대한 믿음(신념)을 통해 경쟁상황에서의 심리적 준비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으로개입이 가능한 능력 믿음의 변화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서 이 연구는 시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정신적 강인함으로 개념화된 승부근성과 선수 능력 믿음 및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 주관 주말리그에 참가하는 서울·경기·경북 지역의 중·고교 축구 팀 소속 축구선수 364명을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선별된 322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PASW Statistics 23.0, AMOS 18.0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신뢰도 분석 및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도출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능력 믿음(증진 및 실체 믿음)과 승부근성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능력 믿음의 경우 선수 자신 및 지도자에 대한 지각 모두 증진 믿음이 실체 믿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승부근성의 3개 하위요인 중에서는 승부욕, 자신감, 투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수 및 지도자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과 승부근성은 5점 리커트식 척도 기준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고 결과 해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차이 및 경향성 살펴본 결과, 실체 믿음의 경우 학년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 기회가 증가하는 주전여부 인식이나 임상경력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운동경력 및 학년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와 더불어 집단 평

균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성은 보다 어린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증진 믿음 요인과 승부근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발달 단계에서 변화하는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에 따른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 째, 청소년 축구선수의 능력 믿음 및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그리고 승부근성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선수 증진 믿음은 승부근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선수 실제 믿음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도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청소년 축구선수의 지각은 증진 믿음과 실제 믿음 모두 승부근성 및 하위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능력의 본질에 대한 신념이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실제 믿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가설과 더불어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한 청소년 축구선수의 학년 변인이 승부근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과 같이, 발달단계에서 변화하는 능력 믿음 및 승부근성에 따른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넷 째, 청소년 축구선수의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지도자 증진 믿음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도자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은 선수의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 및 투지, 자신감 요인의 관계를 더욱 정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스포츠 상황에서의 지도자와 선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스로가 능력의 변화가능성을 높게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능력의 변화가능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인식될 때, 청소년 축구선수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쟁상황에서 더욱 높은 승부근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제 2 절 제언

연구의 과정 및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인한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승부근성은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필요한 정신적 강인함을 토착심리학적 관점 및 개인구성이론을 기반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축구선수에게 필요한 정신력(윤영길, 2004, 2006) 및 한국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신정택 등, 2009)의 공통분모로써 승부근성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고, 이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축구 종목에서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화적 특수성만을 고려하는 토착심리학적 관점을 뛰어 넘어 문화적 보편성까지 고려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승부근성의 개념을 기존 국내외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정신적 강인함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유진, 2000; 한규석, 2002).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및 정서적 경험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되며, 그러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이 지니는 상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상진, 한규석, 2000). 이와 더불어 신정택 등(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승부근성이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정신적 강인함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Gucciardi 등(2009a)이 제시한 것과 같이, 해당 문화에서의 특정 종목이 요구하는 심리적 능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개인구성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대상 및 그들과 관련된 주요 타자 등이 지니고 있는 인식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강인함을 정확히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속해 있는 문화의 맥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해당 종목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적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구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위와 같은 작업

이 선행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기술 통계량 분석 결과,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능력 믿음에 대한 지각은 증진 믿음이 실제 믿음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부근성의 평균 점수는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Dweck 등(1995)이 제시한 것과 달리 특정 영역에서 한 개인이 대체로 한 가지 신념이 우월하게 나타나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구인에 대한 연구대상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 연구가 지닐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의 현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통방법편의란 측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써, 사회환경적 맥락 또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실제 현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신명진, 2015). 특히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질문지를 통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방법편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신명진, 이근철, 2014). 이에 따라, 비록 연구자가 설문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교육, 배부, 수거 및 관리를 도맡는 등 연구절차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질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나 동료 및 지도자로부터의 평가를 인식함으로써 연구 변인과 관련된 실제 현상이 아닌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상황판단검사와 같은 새로운 측정방법을 도입하거나(신명진, 2015), 신명진과 이근철(2014)의 연구에서처럼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잠재적 영향변수를 연구에 통제요인으로 포함하는 등의 통계적 방법, 그리고 익명성의 보장이나 문항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등의 절차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연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에 잠재성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전에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독립 및 조절변수로 선정한 능력 믿음의 측정도구가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일부 요인이 제거되는 등의 심리측정학적 한계점을 나타냈다. Wang과 동료들(Wang & Biddle, 2003; Wang et al, 2005)이 제시한 기존 운동능력 믿음 검사지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증진 믿음 및 실체 믿음의 상위 개념 속에 각각 2요인, 총 4개의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위계적 요인구조가 지지되었지만(Gardner et al., 2015), 이 연구에서는 증진 믿음 및 실체 믿음 2요인 구조의 심리측정학적 근거(신뢰도 및 타당도)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지도자의 능력 믿음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한 지각된 지도자 능력 믿음 검사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록 종속변인인 승부근성과의 관계에서 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의 구분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 검사지에 내재된 세부 하위요인(학습, 향상성, 재능, 안정성)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어 보다 다채로운 결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기존 교육학 분야에서 Dweck과 동료들이 시도한 능력 믿음에 대한 접근과 스포츠 및 운동 상황에서의 Wang과 동료들이 시도한 접근 간 차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기존 교육학 분야에서는 능력 믿음에 대한 일차원적 평정을 통해 능력의 변화가능성 정도를 측정한 반면(예: ‘당신의 지능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6점 리커트 척도상의 평정), 스포츠 및 운동 상황에서의 접근은 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을 각기 구분되는 구인으로 설정하여 각각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가능성을 높게 평정한 경우 증진 믿음으로, 반대의 경우는 실체 믿음으로 구분한 Dweck 등(1995)의 연구와는 달리, 운동능력 검사지에서는 증진 믿음과 실체 믿음에 대한 지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심리측정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능력 믿음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각으로써 일차원성에 존재하는 양극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넷 째, 이 연구에서는 코칭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 믿음에 대한 선수의 지각을 연구에 포함하였으며(Chelladurai, 2007; Smoll & Smith, 1989), 그 결과 청소년 축구선수의 승부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도자 증진 믿음에 대한 지각이 선수가 지닌 증진 믿음과 승부근성 간의 관계를 더욱 정적으로 강화해주는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대상은 다르지만 능력 믿음이라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는 점과 더불어 지도자의 코칭 행동이 선수가 선호하는 코칭 행동과 일치할 경우에 선수의 훈련과 수행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성창훈 등, 2011; 최마리, 김병준, 2008, 2011; Chelladura, 2007; Horn, 2002), 선수 능력 믿음과 지도자의 능력 믿음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환경 부합 이론에 근거한 구성원 간 부합(fit)의 정도는 집단 내 구성원의 만족과 더불어 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능적 측면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최마리, 김병준, 2008, 2011), 선수가 지닌 능력 믿음과 지도자의 능력 믿음이 일치하는 정도가 청소년 축구선수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으로는 지도자 등 주요타자가 지닌 능력 믿음에 대한 선수의 주관적 지각(간접적 접근)또는 실제 지도자 등이 지닌 능력 믿음(직접적 접근)을 측정하여 선수 자신의 능력 믿음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간의 일치성을 탐색해볼 수 있으며(김영일, 유태용, 2008),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선수 행동 부합도와 같이 선수와 주요타자가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비교해볼 수도 있다(최마리, 김병준, 2008, 2011). 역동적인 스포츠 상황에서는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일방적인 코칭보다는 지도자와 선수 간 상호작용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이근철 등, 2014; Jowett & Cockerill, 2003), 이와 같은 접근은 일반적으로 코치의 특성이나 리더십 유형을 통해 선수의 수행을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보다 높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이섭, 김용이. (2000). 운동선수의 생활스트레스, 성격적 강인함이 운동상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1), 347-354.
- 권성호, 문민권, 안효연. (2015). 운동선수의 '절실함'에 대한 개념 및 구조 탐색과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3), 109-124.
- 권오성, 김수정, 이충영. (2015). 축구 주말리그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4(1), 279-293.
- 김경엽, 박정호. (2016). 배드민턴 선수의 승부근성과 스포츠집중력 및 인지된 경기력. **코칭능력개발지**, 18(1), 67-78.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나라, & 문창일. (2011). 정신적 강인함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운동학 학술지**, 13(1), 43-53.
- 김병현, 이한규, 엄한주. (1998). 한국형 정신력 검사지 개발 (I): 스포츠 재미거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2), 25-28.
- 김성일. (2014). 대학 축구선수의 운동정체성과 승부근성 및 운동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273-285.
- 김성훈, 노갑택, 신정택. (2010). 태권도 선수들의 정신력 개념 구조 파악. **대한무도학회지**, 12(3), 35-47.
- 김승철, 하형주. (1995). 유도선수들의 정신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6(2), 101-110.
- 김영미, 이화석, 한혜원. (2010).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이 자기관리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학술발표회초록집**, p. 62.
- 김영일, 유태용. (2008). 조직 구성원의 개인-환경 부합과 정직성이 직장 내 이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1), 27-58.
- 김옥분, 김혜진. (2013). 영재와 평재의 지적능력신념 형성에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탐색. **영재와 영재교육**, 12(1), 207-232.
- 김원배. (2001). **투기종목 선수의 정신력개념 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미간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원배. (2002). 스포츠 정신력 개념 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21-41.
- 김용규, 강지훈, 김덕진. (2010).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정신력

- 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2(3), 9-16.
- 김인수. (2015). 아동의 운동에 대한 능력믿음과 정신력,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2), 45-55.
- 김인수. (2017). 초등학생의 운동참여가 정신력, 회복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4), 31-45.
- 김인수, 최정아. (2016). 초등학교 축구선수의 성격타입 (A/B), 정신력과 운동몰입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4), 175-187.
- 김정목, 김병준. (2010). 씨름선수의 정신력과 심리기술의 관계. **스포츠과학논문집**, 22, 15-27.
- 김정목, 김병준. (2015). 엘리트 씨름 선수의 정신력 형성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1), 103-120.
- 김정목, 김영옥, 배연석. (2015). 엘리트 씨름선수의 혼잣말 기능과 정신력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7(3), 57-6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청택. (2016). 특집논문: 구조방정식모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 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17(1), 1-29.
- 김현남. (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능력믿음과 자기관리의 관계. **무용예술학연구**, 31, 25-38.
- 김현우. (2014).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능력믿음과 승부근성 및 교육성취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325-336.
- 김홍설. (2010).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및 정신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91-397.
- 민경훈, & 정한기. (2012). 초등학교 아동의 암묵적 믿음과 행동조절 및 운동참여의도 간 인과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43-156.
- 박경신. (2012). **운동선수의 정신력과 긍정심리자본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기, 송정화. (2008). 변화신념,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및 주관적 안녕의 인과구조 탐색. **교육심리연구**, 22(2), 333-350.
- 박종진. (2000). 레슬링선수의 경기력 수준에 따른 정신력과 주의형태의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 523-533.
- 박종길. (2012). 지각된 동기분위기와 상황적 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운동능력 믿음과 유능감, 목표성향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43-58.

- 박중길, 김기형. (2010).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민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 조절의 구조적 관계: 3 가지 동기이론의 관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2), 101-129.
- 박지영, 오연풍, 양춘호. (2016). 대학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승부근성과 운동열정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755-763.
- 박혜주. (2014). 슈퍼 엘리트급 선수들의 정신력 개념 구조 탐색; Kelly 의 개인 구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3(4), 239-253.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배병렬. (2015).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청람.
- 백기명, 배춘식. (2012). 대학축구선수들의 학교참여정도와 운동수행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447-45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창훈, 김태형, 유승준, 최마리, 박상혁. (2011). 지각된 코치-선수의 부합정도와 심리육구 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2), 187-200.
- 성창훈, 박상혁. (2012). 스포츠 실패내성의 구조 및 정신력과의 다차원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4), 87-101.
- 성창훈, 박상혁. (2013). 실패내성의 스포츠수행 예측 안정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2), 115-125.
- 성창훈, 홍성철,성한기. (2001). 학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탈퇴동기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145-162.
- 송용관, 천승현, 황승현. (2017). 스포츠 상황에서의 코칭방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육구만족, 정신력, 그리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1), 247-261.
- 송진섭, 임식. (2015). 대학 배구선수들의 자기관리 및 정신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3), 479-490.
- 신동성, 구해모, 이병기, 한명우, 이강현. (1999). Loehr의 심리검사지(MTQ) 규준개발. **체육과학연구**, 10(1), 17-32.
- 신명진. (2015). 스포츠심리학에서 상황판단검사의 필요성과 채점방식에 따른 타당성 비교. **체육과학연구**, 26(1), 73-84.
- 신명진, 이근철. (2014).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위계적 모형 (HMIEM) 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3), 89-100.
-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 (2009). 국내 정상급 선수를 위한 승부근성 검사지 개

- 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2), 755-772.
- 안도희. (2013).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03-126.
- 안도희, 김옥분, 표경선. (2005). 대학생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성취목적 지향 및 학습 접근책간의 관계 모형. **한국교육**, 32(4), 3-27.
- 오인수, & 서용원. (2001). 피그말리온 리더십 행동의 규명 및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4(2), 43-71.
- 유진. (2000). 스포츠심리학: 한국 스포츠 심리측정의 내용분석과 미래 방향. **한국체육학회지**, 39(2), 246-260.
- 윤영길. (2004). 축구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의 위계적 중요도. **체육과학연구**, 15(3), 102-113.
- 윤영길. (2009). 축구선수의 실천지능과 전술운용에서 실천지능의 활용 가능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2), 113-127.
- 윤영길. (2013).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축구재능 발달과업 추정. **체육과학연구**, 24(4), 709-719.
- 윤영길, 김원배. (2004). 축구 경기력에서 심리요인의 기여도 산출을 위한 계층 분석 (AHP) 의 적용.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2), 129-138.
- 윤영길, 이성철. (2006).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스트레스 자각강도. **한국체육학회지**, 45(2), 55-64.
- 윤영길, 이용수. (2006). 축구 경기력 결정 요인의 구조와 위계적 중요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4), 87-100.
- 윤영길, 정청희. (1999). 고교 대학 축구선수의 운동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1), 17-45.
- 이강현, 김병준, 안정덕. (2004). **스포츠심리검사지핸드북**. 서울: 무지개사.
- 이근철, 김인우, 신명진. (2014).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선수 관계와 선수만족, 집단 응집력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6(2), 37-45.
- 이나경, 유태용. (2015). 상사의 능력이변성 신념이 부하의 실패내성, 자기효능감 및 부정적 피드백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2), 173-197.
- 이만재, 김병식. (2014). 청소년 축구선수 상해 · 정신력 · 동조과잉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학회지**, 23(4), 675-685.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병근. (2011). 신체상과 스포츠 정신력에 따른 최대근력의 상관 및 오즈비 분석. **운동과학**, 20(4), 449-460.

- 이병근, 김수빈. (2013). 남녀 대학생의 인지체력수준에 따른 스포츠정신력과 신체상의 비교. **운동학 학술지**, 15(3), 61-70.
- 이수경. (2016). 성인 초기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과 그릿(Grit)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표, 김영수, 이상돈. (2008). 축구선수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7(4), 553-563.
- 이원희, 박현권, 임수원. (2011). 현행 축구 주말리그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5(1), 447-458.
- 이정국. (2015). 대학 운동부 선수가 지각하는 코칭리더십과 승부근성 및 운동성과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3(3), 29-40.
- 이종환. (2008). SPSS 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경기 고양: 공동체.
- 이학준. (1999). 스포츠에서 승리와 패배의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13(3), 68-76.
- 이혜선, 양명환. (2013). 운동선수들의 운동능력민음, 성취목표성향, 자기조절동기 및 운동몰입 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167-185.
- 임진영, 김재필, 임성호. (2010). 하권: 레저스포츠 편; 요트선수들의 정신력과 성취목표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1(2), 1057-1070.
- 전병관, 추수진. (2011).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5), 469-481.
- 전성미, 전정우, 최천. (2010). 주말리그제 참여 학생 운동선수의 성취동기에 따른 사회적응, 자기효능감 및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1), 1-13.
- 정청희, 김원배, 이춘만. (1998). 고교 선수들의 정신력 질문지 개발 (Development of the Mental Toughness Inventory for High School Athletes). 88 서울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65-474.
- 조대용, 엄성호. (2008). 심리기술훈련이 대학축구선수의 경기력결정 심리요인과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1-20.
- 차성복. (1996). 경쟁불안과 정신력 요인이 골프경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 273-279.
- 최마리, 김병준. (2008). 배드민턴 선수와 지도자 행동일치로 예측한 내적동기 및 자기 효능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2), 169-184.
- 최마리, 김병준. (2011).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의 행동부합에 관한 개념모형 제안. **한국체육학회지**, 50(1), 45-56.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

- 격, 14(2), 123-144.
- 추수진. (2011). **대학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2007).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2002). 한국적 심리학적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67-95.
- 한길화. (2011). **관리자의 내현 신념에 따른 코칭행동이 직원의 인사 평가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승용. (2013).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관리전략 및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정훈, 안성훈. (2015). 스포츠, 운동심리학: 스포츠 심리상담사 수련과정과 슈퍼비전을 통한 대학축구팀 심리지원 사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4), 63-8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 홍준희. (2005). 성취목표성향의 예측변인으로서 체육 능력의 암묵적 이론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1), 1-15.
- Aryee, S., Budhwar, P. S., & Chen, Z. X. (2002). Trus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work outcomes: Test of a social exchange mode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3), 267-285.
- Balaguer, I., González, L., Fabra, P., Castillo, I., Mercé, J., & Duda, J. L. (2012). Coaches' interpersonal styl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he well-and ill-being of young soccer player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ports Sciences*, 30(15), 1619-162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eer, J. S. (2002). Implicit self-theories of shy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1009.
-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 development*, 78(1), 246–263.
- Brand, S., Gerber, M., Kalak, N., Kirov, R., Lemola, S., Clough, P. J., ... & Holsboer-Trachsler, E. (2014). Adolescents with greater mental toughness show higher sleep efficiency, more deep sleep and fewer awakenings after sleep onse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4(1), 109–113.
- Brand, S., Kalak, N., Gerber, M., Clough, P. J., Lemola, S., Pühse, U., & Holsboer-Trachsler, E. (2016). During early and mid-adolescence, greater mental toughness is related to increased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6), 905–915.
- Browne, M. W., Cudeck, R., Tateneni, K., & Mels, G. (2010).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sion 3.0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83), 280.
- Bull, S. J., Albinson, J. G., & Shambrook, C. J. (1996). *The mental game plan: Getting psyched for sport*. Sports Dynamics.
- Bull, S. J., Shambrook, C. J., James, W., & Brooks, J. E. (2005).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ental toughness in elite English cricket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7(3), 209–227.
- Burhans, K. K., & Dweck, C. S. (1995). Helplessnes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contingent worth. *Child development*, 66(6), 1719–1738.
- Burnette, J. L., O'boyle, E. H., VanEpps, E. M., Pollack, J. M., & Finkel, E. J. (2013). Mind-sets matter: A meta-analytic review of implicit theories and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9(3), 655–701.
- Chase, M. A. (2010). Should coaches believe in innate ability?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mindset. *Quest*, 62(3), 296–307.
- Chelladurai, P. (2007). *Leadership in sports*.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Third Edition, 111–135.
- Chiu, C. Y., Hong, Y. Y., & Dweck, C. S. (1997). Lay dispositionism and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19.
- Cimpian, A., Arce, H. M. C., Markman, E. M., & Dweck, C. S. (2007). Subtle linguistic cues affect children's motivation. *Psychological Science*, 18(4), 314–316.
- Clough, P., Earle, K., Perry, J. L., & Crust, L. (2012). Comment on

- “Progressing measurement in mental toughness: A case example of the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 48” by Gucciardi, Hanton, and Mallett (2012).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1(4), 283–287.
- Clough, P., Earle, K., & Sewell, D. (2002). Mental toughness: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Solutions in sport psychology*, 32–43.
- Colbert, S. D., Scott, J., Dale, T., & Brennan, P. A. (2012). Performing to a world class standard under pressure—Can we learn lessons from the Olympians?. *British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50(4), 291–297.
- Connaughton, D., Wadey, R., Hanton, S., & Jones, G. (2008).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mental toughness: Perceptions of elite performer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6(1), 83–95.
- Cook, C., Crust, L., Littlewood, M., Nesti, M., & Allen-Collinson, J. (2014). ‘What it takes’: perceptions of mental toughness and its development in an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Academy.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6(3), 329–347.
- Coulter, T. J., Mallett, C. J., & Gucciardi, D. F. (2010). Understanding mental toughness in Australian soccer: Perceptions of players, parents, and coache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8(7), 699–716.
- Creasy Jr, J. W. (2005). *An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mental toughness in sport*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 Crust, L. (2007). Mental toughness in sport: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5(3), 270–290.
- Crust, L. (2008). A review and conceptual re-examination of mental toughnes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7), 576–583.
- Crust, L., & Clough, P. J. (2005). Relationship between mental toughness and physical endura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00(1), 192–194.
- Crust, L., & Clough, P. J. (2011). Developing mental toughness: From research to practic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in Action*, 2(1), 21–32.
- Crust, L., & Swann, C. (2011). Comparing two measures of mental

- tough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17–221.
- Crust, L., Nesti, M., & Littlewood, M. (2011). Player and coach ratings of mental toughness in an elite association football academ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Athletic Insight*, 239–250.
- Dai, T., & Cromley, J. G. (2014). Changes in implicit theories of ability in biology and dropout from STEM majors: A latent growth curve approa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9(3), 233–247.
- Diment, G. M. (2014). Mental toughness in soccer: a behavioral analysis. *Journal of Sport Behavior*, 37(4), 317.
- Drees, M. J., & Mack, M. G. (2012). An examination of mental toughness over the course of a competitive season. *Journal of Sport Behavior*, 35(4), 377.
- Durand-Bush, N., & Salmela, J. H. (2002).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expert athletic performance: Perceptions of world and Olympic champion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3), 154–171.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10), 1040.
- Dweck, C. S. (1991). Self-theories and goal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3), 199–235.
- Dweck, C. S. (1996). Implicit theories as organizers of goals and behavior.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69–90.
- Dweck, C. S. (2000).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sychology Press.
-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USA: Random House Digital, Inc..
- Dweck, C. S. (2016). Perspectives on the nature of intelligence can affect individuals' capacity to learn from challenges and failures. *Stylized Facts: Cognition and Behavior*, October 6, 2016.
- Dweck, C. S. (2017a). The Journey to Children's Mindsets—and Beyond.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2), 1–6.
- Dweck, C. S. (2017b). *Mindset-Updated Edition: Changing The Way You think To Fulfil Your Potential*. Hachette UK.

- Dweck, C. S., Chiu, C. Y., & Hong, Y.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4), 267-285.
- Dweck, C. S., Hong, Y. Y., & Chiu, C. Y. (1993).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5), 644-656.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
- Fredricks, J. A., & Eccles, J. S. (2002). Children's competence and value beliefs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growth trajectories in two male-sex-typed domains.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519.
- Gardner, L. A., Vella, S. A., & Magee, C. A.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beliefs, anxiety, and attributional style in high-level soccer play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7(4), 398-411.
- Gerber, M., Brand, S., Feldmeth, A. K., Lang, C., Elliot, C., Holsboer-Trachsler, E., & Pühse, U. (2013). Adolescents with high mental toughness adapt better to perceived stress: A longitudinal study with Swiss vocationa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7), 808-814.
- Gerber, M., Kalak, N., Lemola, S., Clough, P. J., Perry, J. L., Pühse, U., Elliot, C., Holboer-Trachsler, E., & Brand, S. (2013). Are adolescents with high mental toughness levels more resilient against stress?. *Stress and Health*, 29(2), 164-171.
- Gerber, M., Kalak, N., Lemola, S., Clough, P. J., Pühse, U., Elliot, C., Holboer-Trachsler, E., & Brand, S. (2012). Adolescent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are associated with mental toughness. *Mental Health and Physical Activity*, 5(1), 35-42.
- Golby, J., Sheard, M., & Van Wersch, A. (2007). Evaluat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sychological performance inventor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05(1), 309-325.
- Gould, D., Dieffenbach, K., & Moffett, A. (200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development in Olympic champion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3), 172-204.
- Gould, D., Hodge, K., Peterson, K., & Petlichkoff, L. (1987). Psychological

- foundations of coach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intercollegiate wrestling coaches. *The Sport Psychologist*, 1(4), 293–308.
- Gucciardi, D. F., & Gordon, S. (2009).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ricket Mental Toughness Inventory (CMTI). *Journal of Sports Sciences*, 27(12), 1293–1310.
- Gucciardi, D. F., & Gordon, S. (2011). *Mental toughness in spor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 Gucciardi, D. F., Gordon, S., & Dimmock, J. A. (2008).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ental toughness in Australian football.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0(3), 261–281.
- Gucciardi, D. F., Gordon, S., & Dimmock, J. A. (2009a). Advancing mental toughness research and theory using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 54–72.
- Gucciardi, D. F., Gordon, S., & Dimmock, J. A. (2009b).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mental toughness inventory for Australian football.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1), 201–209.
- Gucciardi, D. F., Gordon, S., Dimmock, J. A., & Mallett, C. J. (2009). Understanding the coach's role in the development of mental toughness: Perspectives of elite Australian football coache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7(13), 1483–1496.
- Gucciardi, D. F., Hanton, S., Gordon, S., Mallett, C. J., & Temby, P. (2015). The concept of mental toughness: tests of dimensionality, nomological network, and traitness. *Journal of Personality*, 83(1), 26–44.
- Gucciardi, D. F., Hanton, S., & Mallett, C. J. (2012). Progressing measurement in mental toughness: A case example of the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 48.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1(3), 194.
- Gucciardi, D. F., Hanton, S., & Mallett, C. J. (2013). Progressing measurement in mental toughness: A response to Clough, Earle, Perry, and Crust.
- Gucciardi, D. F., Jackson, B., Hodge, K., Anthony, D., & Brooke, L. (2015). Implicit Theories of Mental Toughness: Relations With Cognitive, Motivational, and Behavioral correlates. *Sport, Exercise, and*

- Performance Psychology*, 4(2), 100-112.
- Gucciardi, D. F., & Jones, M. I. (2012). Beyond optimal performance: Mental toughness profiles and developmental success in adolescent crickete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4(1), 16-36.
- Gucciardi, D. F., Zhang, C. Q., Ponnusamy, V., Si, G., & Stenling, A. (2016). Cross-cultural invariance of the mental toughness inventory among Australian, Chinese, and Malaysian athletes: a bayesian estimation approach.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8(2), 187-202.
- Guttman, A., (1978).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 「근대 스포츠의 본질: 제례의식에서 기록추구로」 (송형석 역, 2008). 나남.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lsen, W. F., Hedoges, N. J., Winckel, J. V. & Starkes, J. L. (2000) The role of talent, physical precocity and practice in the development of soccer expertise. *Journal of Sports Sciences*, 18(9), 727-736.
- Heslin, P. A., Latham, G. P., & VandeWalle, D. (2005). The effect of implicit person theory on performance 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5), 842.
- Heyman, G. D., & Dweck, C. S. (1998). Children's thinking about traits: Implications for judgments of the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69(2), 391-403.
- Horn, T. S. (2002). Coaching effectiveness in sport domain: Advances in sport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7-134.
- Jackman, P. C., Swann, C., & Crust, L. (2016). Exploring athlete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toughness and dispositional flow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7, 56-65.
- Job, V., Dweck, C. S., & Walton, G. M. (2010). Ego depletion—Is it all in your head? Implicit theories about willpower affect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21(11), 1686-1693.
- Jones, G., Hanton, S., & Connaughton, D. (2002). What is this thing called

- mental toughness? An investigation of elite sport perform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3), 205-218.
- Jones, G., Hanton, S., & Connaughton, D. (2007). A framework of mental toughness in the world's best performers. *The Sport Psychologist*, 21(2), 243-264.
- Jones, J. G., & Moorhouse, A. (2008). *Developing mental toughness: Gold medal strategies for transforming your business performance*. Spring Hill.
- Jose, P. E., & Bellamy, M. A. (2012). Relationships of parents' theories of intelligence with children's persistence/learned helplessnes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6), 999-1018.
- Jowett, S., & Cockerill, I. M. (2003). Olympic medallists' perspective of the athlete - coach relationship.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4), 313-331.
- Jowett, N., & Spray, C. M. (2013). British Olympic hopefuls: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mplicit ability beliefs in elite track and field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4(2), 145-153.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168.
- Kobasa, S. C. O., Maddi, S. R., Puccetti, M. C., & Zola, M. A. (1985). Effectiveness of hardiness, exercise and social support as resources against illn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9(5), 525-533.
- Kruglanski, A. W., Shah, J. Y., Fishbach, A., Friedman, R., Chun, W. Y., & Sleeth-Keppler, D. (2002). A theory of goal system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331-378.
- Kuan, G., & Roy, J. (2007). Goal profiles, mental toughness and its influence on performance outcomes among Wushu athletes. *Journal of Sports Science and Medicine*, 6(2), 28-33.
- Loehr, J. (1984). *Athletic Excellence: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Forum Publishing Company, Denver.
- Loehr, J. E. (1986).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Achieving athletic excellence*. Penguin Books.

- Mack, M. G., & Ragan, B. G. (2008). Development of the mental, emotional, and bodily toughness inventory in collegiate athletes and nonathletes. *Journal of athletic training, 43*(2), 125-132.
- Madrigal, L., Hamill, S., & Gill, D. L. (2013). Mind over matter: The development of the Mental Toughness Scale (MTS). *The Sport Psychologist, 27*(1), 62-77.
- Mahoney, J. W., Gucciardi, D. F., Ntoumanis, N., & Mallet, C. J. (2014). Mental toughness in sport: Motivational antecedents and associations with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6*(3), 281-292.
- Middleton, S. C. (2007). *Mental toughness: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Middleton, S. C., Marsh, H. W., Martin, A. J., Richards, G. E., & Perry, C. (2004a). Discovering mental toughness: A qualitative study of mental toughness in elite athletes. *SELF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Australia*.
- Middleton, S. C., Marsh, H. W., Martin, A. J., Richards, G. E., & Perry, C. (2004b). Developing the mental toughness inventory (MTI). *Where To From Here?: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Biennial SELF Research Conference*.
- Miller, L. (2008). Stress and resilience in law enforcement training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1*, 109-124.
- Molden, D. C., & Dweck, C. S. (2006). Finding "meaning" in psychology: a lay theories approach to self-regulation,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3), 192.
- Mueller, C. M., & Dweck, C. S. (1998). Praise for intelligence can undermine children's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33.
- Ommundsen, Y. (2001). Self-handicapping strategie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influence of implicit theories of the nature of ability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3), 139-156.
- Parkes, J. F., & Mallett, C. J. (2011). Developing mental toughness:

- Attributional style retraining in rugby. *The Sport Psychologist*, 25(3), 269–287.
- Perry, J. L., Clough, P. J., Crust, L., Earle, K., & Nicholls, A. R. (2013). Factorial validity of the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48.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5), 587–592.
- Rusk, R. D., & Waters, L. E. (2013). Tracing the size, reach, impact, and breadth of positive psycholog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3), 207–221.
- Sarrazin, P., Biddle, S., Famose, J. P., Cury, F., Fox, K., & Durand, M. (1996). Goal orientations and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sport ability in children: A social cogni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399–414.
- Sheard, M. (2012). *Mental toughness: The mindset behind sporting achievement*. Routledge.
- Sheard, M., Golby, J., & Van Wersch, A. (2009). Progress towar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ports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 (SMTQ).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186–193.
- Singh, J., Dureja, G., & Singh, S. (2012). A Cross Sectional Analysis of Mental Toughness and Will to Win Among Elite Football Players. *Brazilian Journal of Biomotricity*, 6(4).
- Smoll, F. L., & Smith, R. E. (1989). Leadership behaviors in sport: A theoretical model and research paradig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8), 1522–1551.
- Thelwell, R., Weston, N., & Greenlees, I. (2005). Defining and understanding mental toughness within soccer.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7(4), 326–332.
- Vealey, R. S.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3), 221–246.
- Vealey, R. S. (2005). *Coaching for the inner edge*.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Vella, S. A., Braithewaite, R. E., Gardner, L. A., & Spray, C. M. (2016).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implicit theory research in sport,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9(1), 191–214.
- Wang, C. J., & Biddle, S. J. (2003). Intrinsic motivation towards sports in Singaporean students: The role of sport ability belief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5), 515–523.
- Wang, C. J., Liu, W. C., Biddle, S. J., & Spray, C. M. (2005).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Athletic Ability Questionnaire Version 2.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1245–1256.
- Wang, J. C., Liu, W. C., Lochbaum, M. R., & Stevenson, S. J. (2009). Sport ability beliefs, 2 x 2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competence in sport and exercis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0(2), 303–312.
- Weinberg, R., Butt, J., & Culp, B. (2011). Coaches' views of mental toughness and how it is buil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9(2), 156–172.
- Weinberg, R., Freysinger, V., & Mellano, K. (2016). How can coaches build mental toughness? Views from sport psychologist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in Action*, 1–10.
- Weinberg, R. S., & Gould, D. (2014).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6E. Human Kinetics.
- Whiteley, P., Sy, T., & Johnson, S. K. (2012). Leaders' conceptions of followers: Implications for naturally occurring Pygmalion effects. *The Leadership Quarterly*, 23(5), 822–834.
- Wigfield, A., Eccles, J. S., Yoon, K. S., Harold, R. D., Arboreton, A. J., Freedman-Doan, C., & Blumenfeld, P. C. (1997). Change in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nd subjective task values across the elementary school years: A 3-year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51.
- Yeager, D. S., & Dweck, C. S. (2012). Mindsets that promote resilience: When students believ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be developed. *Educational Psychologist*, 47(4), 302–314.
- Yeager, D. S., Johnson, R., Spitzer, B. J., Trzesniewski, K. H., Powers, J., & Dweck, C. S. (2014). The far-reaching effects of believing people can change: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shape stress, health, and

achieve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6), 867.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중고등학교 축구선수가 지각한 능력 믿음과 승부근성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장도진
(000-0000-0000 / -----@snu.ac.kr)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운동 경력 : 축구시작 (20 년) ~ 현재; () 년째
2. 학급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3.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주전여부 : ① 주전 ② 로테이션 ③ 후보 ※최근 공식경기 10경기 기준
5. 개인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없음
6. 단체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없음

☞ 다음은 운동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운동능력 믿음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1	2	3	4	5
2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3	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어야 한다.	1	2	3	4	5
4	내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5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필요가 있다.	1	2	3	4	5
6	뛰어난 기량을 쌓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1	2	3	4	5
7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도달하는 기술은 아주 조금 변화될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기량은 항상 좋아지게 될 것이다.	1	2	3	4	5
9	나의 운동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	2	3	4	5
10	내가 노력을 할 때, 기량을 항상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11	나는 어느 정도 운동능력이 있지만, 실제 그 수준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	1	2	3	4	5
12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할 때, 기량은 항상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 다음은 승부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운동선수 승부근성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주전 경쟁에서 이기려고 온힘을 다 쓴다.	1	2	3	4	5
2	모든 경기에서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1	2	3	4	5
3	매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다.	1	2	3	4	5
4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랄도 한다.	1	2	3	4	5
5	중요한 경기일수록 승부욕이 강하다.	1	2	3	4	5
6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7	힘들어도 끝까지 참는다.	1	2	3	4	5
8	상대보다 실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밀어부친다.	1	2	3	4	5
9	극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딘다.	1	2	3	4	5
10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뚝다.	1	2	3	4	5
11	무엇이랄도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본다.	1	2	3	4	5
12	힘이 들면 끝까지 참지 못한다.	1	2	3	4	5
13	나는 참고 끝까지 덤빈다.	1	2	3	4	5
14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이길 수 있다.	1	2	3	4	5
15	정신적 압박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1	2	3	4	5
16	상대가 두렵다.	1	2	3	4	5
17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1	2	3	4	5
19	내 자신을 믿고 훈련에 임한다.	1	2	3	4	5
20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 다음은 지도자의 운동능력에 대한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운동능력 믿음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감독님, 코치님)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의 지도자는 뛰어난 기량을 쌓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의 지도자는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도달하는 기술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기량은 항상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의 지도자는 운동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의 지도자는 노력을 할 때, 기량은 항상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의 지도자는 어느 정도 운동능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그 수준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의 지도자는 충분히 노력을 할 때, 기량은 항상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Abstract

The Effect of Ability Belief and Perceived Coach's Ability Belief on Mental Toughness(Tenacity) of Adolescent Soccer players

Jang, Doj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dolescent soccer players by verify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among the athlete's ability belief, the perceived coach's ability belief and the mental toughness (the tenacity).

First, the mental toughness required for adolescent soccer players who are in a continuous competition situation was conceptualized as the tenacity, and the influence of the athlete's ability belief and the perceived coach's ability belief to tenacity was examin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so, the hypothes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hlete's ability belief and the tenacity of adolescent soccer players is moderated by the perceived coach's ability belief was examin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research purposes, 364 adolescent soccer players were surveyed, and 322 of them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entity and incremental belief of the perceived coach's ability belief i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to the tenacity, but the only incremental belief of the athlete's ability belief is significant variable which positively influenced to the tenacity. And the effect of the perceived coach's incremental belief as a moderator between the athlete's incremental belief and the tenacity was verified.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was proposed.

keywords : adolescent soccer player, soccer coach, ability belief, mental toughness, tenacity

Student Number : 2015-21673